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中央軍西安進擊 先鋒隊戰端開始

多數蘇代表張軍機樞에參劃 共產軍加擔이注目

國府武力討伐決定

【南京十三日發同盟】國民政府行政院은 十三日午前八時緊急會議를열고 副院長孔祥熙氏以下、外交部長張群氏、軍政部長何應欽氏、海軍部長陳紹寬氏、鐵道部長張公權氏、實業部長吳鼎昌氏等十餘名出席、議長孔祥熙氏로부터 現在까지 判明된 眞相을 說明하고 對策을 協議한 結果武力討伐、妥協論의 硬軟兩派가 對立하야 午後에 至하여도 議論百出하야 容易히 決定치못하엿섯는데 드듸여 武力討伐을 主張하는 何部長이 全軍을 指揮하야 張學良部隊를 討伐하기로 決定한것이다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 依하야 陝西省境中에잇는 中央軍 第一軍胡宗南氏麾下의 四個師는 張學良討伐의 命을바더 西安에 進擊을 開始 同軍의 先頭部隊는 十三日午前 西安市內에到着 學良軍과 戰端을 開始하엿다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側消息에 依하면 今回叛亂에 參加한部隊는 學良麾下의 六個師로서 叛軍의 本部로된 學良司令部에는 多數의 蘇聯代表가 參集하야 樞機에 參與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엿다

【上海十三日發同盟】目下西方一帶에 駐屯하고잇는 中央軍은 胡宗南軍四個師 外甘肅省에는 毛炳文軍二個師 五十五軍一個師 合計八個師인바 모다 張學良討伐의 命을 接하자 곳西安으로 向해 進擊을 開始 學良軍과의 間에벌서 前衛戰이 開始되엿다 그런데 學良軍만으로는 到底히 中央軍의 敵이못되고 背後에잇는 共產軍의 加擔이 勝負를 決할것이라하야 注目된다

蔣氏親衛隊抵抗!

張學良軍에게漸次掃蕩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側着報에依하면 張學良部隊에 包圍된 蔣介石親衛隊는 猛然抵抗하얏스나 十三日朝來 西安城內各所에 市街戰을 惹起하얏는데 優勢한 學良軍으로 말미아마 漸次掃蕩되고잇다

廣東首腦部 西安事件協議

【廣東十三日發同盟】西安事件에 對한 廣東軍首腦部會議는 十三日午前繼續하야 午後一時부터余漢謀公館에서 擧行되여 그後의 情勢에 基하야 意見을 交換中인데 西安方面의 情勢는 勿論 中央軍의軍事對策 中央勢力派의 態度等詳細가 아즉判明치안흠으로 暫時形勢를 觀望하야 只今고何等의意志表示는 保留함에 一致하얏다 그러나 軍事關係要人의 談을 綜合하야 中央軍土着軍兩勢力이 錯綜한 廣東에서 妄動하면 廣西派에利用될 憂慮가잇서서 余漢謀氏等 廣東首腦部로서는 大勢의 推移를 본後 漸次 中央派勢力을 芟除하야 黨、財政、政治의 三權의 回收를 함에 意見一致한 模樣이다 그中 中央軍의 大部隊는 北方에移動하야 廣東省內에 거의兵力을 남기지안흔 今日 廣東廣西兩省內에서의 中央側最高軍事機關인 廣東行營의 權威는 急速히 失墜될것이므로 土着派는 喜色滿面하고 在廣東中央派의 要人은 憂色에 싸혀잇다

西北事態急迫으로 駐屯軍推移注視

【天津】十三日發同盟】中國駐屯軍司令部는 十三日午後四時 部隊補閱次로 巡視中인田代司令官의歸津을 待하야 重要協議를遂하기로되엿다 그리고 西安의狀況은 通信機關의杜絶로 其後消息은 全然不明이나 隴海線一帶는 綏遠事件으로待機中인 中央軍約十一個師가 鄭州를中心으로 集結하고잇슴으로 萬若國民政府가 張學良討伐을 敢行할境遇에는 同方面에잇는部隊가 第一線을 擔當하리라고觀測되는바 山西 河南兩省及 陝西省南部는 爲先動亂의渦中에 入하야 北中은勿論 燎原의火와如히 全中에波及할憂慮가잇슴으로 日本駐屯軍及駐外當局은 情勢의推移를 異常한關心을가지고注視하고잇다

錢大鈞氏死亡 學良軍武裝解除

【上海十三日發同盟】在上海國府要人宅에의 入電에 依하면 蔣介石氏가 襲擊되든際 抵抗하야負傷한 錢大鈞氏는 十三日午後 드되여 死亡하엿다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 依하면 洛陽에서 兵變을 이르킨 張學良의步兵二個團은 中央軍 劉峙에게 武裝解除되엿다 이로依하야 洛陽은 平穩히 治安이維持되엿다

武漢에戒嚴令宣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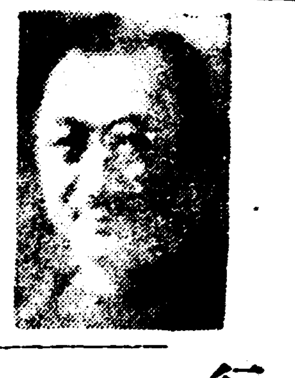
【漢口十三日發同盟】武漢當局은 張學良軍의 叛亂이 武漢方面에一波及할을 危懼하야 十三日午後 武漢三鎭(漢口、漢陽、武昌)에戒嚴令을 即時施行하얏다

軍事行動開始時는 動亂으로陷入 中國側要人觀測

【天津十三日發同盟】張學良의反蔣쿠·데타에對하야 南地中國側要人은 左와如한 觀測을하고잇다 張學良이現在의 地位에不滿을 가지고잇는것은 事實이나 今回事件에는蘇聯과의 關係가如何히重大한 役割을하고잇는가는 輕視할수업는點이다 卽學良은 西南問題發生前後부터이미十數回西安에서 蘇聯代表와會談한事實이잇고 또蘇聯側은 厭厭히張學良、李宗仁、閻錫山等을 誘導하야 南京을國民黨外廓의 人民戰線陣의強化를圖하고 對日戰爭은 絕對中國側의 勝利에 確信할것이라는 確信을 注入하엿슴으로 學良의 今回行動도 對日戰線에依하야 自己의 地位를有利하게 擁護하라는 意圖인것만은 疑心할수업다 이에依하야 學良軍과中央軍이 衝突하는일이잇다면 全中國은 到底히 收拾할수업는 動亂에陷할것은 必然的이다 이衝突이엇더라도 日中關係가全面的惡化할것은 疑心할수업다

孔氏全國에通電

行政院長을代理하야



【南京十四日發同盟】蔣介石氏에代身하야 國府行政院長의 職務를負한 孔祥熙氏는 十四日午前十一時左와如히 通電을 發하엿다

余는 院長 蔣介石氏가 意外의 職務行使不能에 陷하엿슴으로 代理하기로 決定되엿다 西安에잇는 小數將領으로부터 通電을받고 此暴擧에어서는데 中央의 主旨에 對하야 甚히誤解하고잇다 中央同人은 抗敵問題에對하야는 勿論 覺悟한바잇거니와 內憂外患이 交交로 迫到하는 今日 救國之策으로서 國家의主權과 領土擴籌을 認定하고잇다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는 爲先國家의 地位를 強化하기에 全力을 다할 必要가잇다 蔣院長은 赤誠을다하야 國家에 殉하고 中興을 遂轉하야이主張을 가지고努力奮鬪하야 그效力은 顯著하다 그런데綏遠의 前線이 決戰하야 이제戰勝할라는 此際 忽然 綏遠의 後方에서이事件이 發生하엿다 이不祥事가發生한것은 國家存亡之秋드듸여 中國國家의前途에 影響하는바 자못큰것이나 我等全國民은 元來大義를 明白히하고 愛國心을 發揮하야 期必코中央의既定策과國家統一完成에 一致擁護할것으로 미드며또地方官民은 中央政府에對하야반듯이忠誠을 盡할것을 信한다 國府同人과가치 難局에 當하야 責任을 負하엿는데 모다 蔣院長의既定方針에 基하야 最大의努力을 拂하고 全國上下합께國家의 緊要를 圖할所信이다 全國民一致의 支援을 求하는 바이다

統一工作에大異狀 反蔣氣勢濃厚!

國民政府改造斷行은時期問題 不安焦燥裏의南京市

【南京十三日發同盟】當地一般觀測에 依하면 現在情勢로서는 蔣介石氏의 生死如何에 不拘하고 그再起는 全然 不可能하므로 國民政府의 大改造斷行은 單純히 時期問題로되여잇다 其他 勢力分野에도 一大變化가 생기여 中央의 統一工作은 드듸여 座折되는수밧게업게되엿다 그리고 現在 國府部內의 各勢力은 모다 鳩首密議하야 自派를 有利하게 誘導하는 모든 劃策을 繼續하고잇는데 此等 內部의 軋轢은 早晩 表面化할것이 必然하므로 이러한 境遇 何應欽 朱培德 張群等을 中心으로하는 蔣介石直系勢力과 學良一派와 相通하는 馮玉祥 唐生智等의 親蘇反蔣派와의 兩者의 對立抗爭을 再現할 空氣가 濃厚하야 그 進行如何로는 何等手段에 依하야 쿠-데타를 斷行하는것이아닌가고 傳하야 南京市街는 바야흐로 暴風前과 가튼 不安한 空氣에 싸여잇다

張麾下의旅長 洛陽占據를拒否

【上海十四日發同盟】中國側公報에 依하면 張學良氏는 洛陽에 駐屯하는 麾下砲兵旅長王某에對하야 洛陽의 官衙飛行場等의 占領을 命하얏는데 同旅長은 叛亂에 加擔함을 질겨하지 안허서 스스로 部隊를 武裝解除하야 中央軍에 歸順하얏다고 한다

洛陽兵變說로 宋美齡安否念慮

【上海十三日發同盟】外國側某筋에 들어온 情報에依하면 洛陽에 駐屯中인 中央軍은 十三日午後 兵變을 이르키고 洛陽을占據하엿다고 傳한다 同軍은 東北軍이 中央軍에 改編되엿슴으로 張學良에 呼應하야 擧兵한것이라한다 十三日午後一時三十分 南京發飛行機로 洛陽에向한 宋美齡夫人의 安否는 念慮된다 (寫眞은 宋美齡女士)

宋氏邸에서 緊急幹部會開催

【北平十三日發同盟】張學良의叛亂 蔣介石氏監禁報道는 靑天霹靂과가티 冀察政權을 震撼케하고 武衣庫의宋哲元氏邸에는 今日早朝부터 秦德純、賈德耀兩氏를爲始하야 冀察首腦者가 續續參集하야 鳩首協議하고잇다 蔣介石氏의 安否가아즉判明되지안킨때문에 冀察政權으로 容易히決定하지못할 模樣이다 張學良의反亂通電에잇서 對日宣戰布告를 要求하고잇슴으로 南京政府의措置如何에依해서는 即時北中事態는 重大影響을及할것임으로 오직蔣介石氏의 安否와 南京側의 態度를注視하고잇는바 頻頻한 電報往復과 多數要人의 參集으로 同邸는 異常한 緊張을呈하여잇다

中央軍討伐開始로 今曉蔣氏銃殺說

【上海十四日發同盟】外人側情報에依하면 張學良氏의 本兼職剝奪令及討伐令은 十三日張學良氏의게 마침내到着하엿는데 張學良氏는此에激怒하야 十四日未明 드듸여 蔣介石氏를 銃殺하엿다한다

蘇聯과諒解잇는듯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確報에 依하면張學良의 今回兵變은 朱、毛等의 共產軍과 連繫한 蘇聯邦側과 判然한 諒解가 成立되엿기때문인데 蔣介石氏를 人質로서 監禁하고 이로써 國民政府로하여금 即時 對日宣戰을公布케하라고 한다。國民政府側이 消極的態度를 取할時는 蘇聯邦後援下에 共產軍과 合流하고 陝西省으로부터 隴海線에進出하야 實力으로써 中原에出馬할라는 意圖이라고 傳한다 右에對하야 南京側은 벌서부터何南省 山西省에잇는 中央軍에對하야 陝西省境에 移駐待機命令을發한模樣으로 張學良 朱、毛聯合軍의 動向如何로는 一大內亂이 意外 近近 勃發할지도豫測할수업는 形勢로되여잇다

英帝退位의重大性

皇帝로매즌紐帶 自治領分離危機

咸尙勳

七、輔弼의責任

如何間 에드와드八世는 退位하셧고 皇帝요-크公殿下가 조-지六世의 稱號로 皇位를 繼承하게되엿다。勿論帝位를 退하신 에드와드八世殿下는 今後 一平民으로써 一生을 보내시려한다하니 그子女가 皇位를 繼承치 못할 法律案을 今番 即位하실 요-크公殿下와 即位에 對한 法案과가티 上程 決議될것은 定한 理致다。이리하야 重大한 危機에선든 英帝國의 皇統은 完全히 繼承되게되엿스니 그功績은 볼드윈首相의 政治的 手腕에 미루지 안흘수업다。그러나 일의 收拾은 完全히 하얏스나 皇帝御退位에 對한 首相의 責任은 免치못할것이다。即 皇帝의 輔弼者로서의 首相의 責任은 免치못할것이다。그러므로 新帝登極의 處理만 끗나면 정벌內閣을 奏請하고 總辭職할것이 政治的 順序다。

八、愛蘭의分離運動

그러나 帝國 기다리라、英國에 帝位問題로 英帝國의 威信이 暫時 失墜된 觀을 본 愛蘭自由國에서는 勿失好機라 하야 對英分離運動을 始作햇다 新皇帝의 登極을 機會로 愛蘭自由國은 十一日 緊急議會를열고 憲法修正案과 執行委員會의權限案을 提出하야 一擧에可決하얏다。憲法修正案이란것은 自由國의 內政에 對한 英皇帝의 干涉을 全然 廢止하고同時에 總督을 廢止하고 議會는 下院만의 一院制度로하는것이오、執行委員會權限案이란것은 執行委員會에 外交及 領事代表의 任命權을 與하고 또 國際條約締結의 權限도 附與하라하는것이다。이것을 詳言하면 愛蘭自由國은 그레트·브리텐、濠洲、加奈陀、新西蘭、南阿聯邦과의 關係를 維持하는限 또 此等各國에 依하야 承認된 外交使節及 領事를 任命하는 權利를 享受하는限 以上의 諸目的에 對하야 皇帝를 承認함、一、英帝의代表인 愛蘭總督制를 廢止함、一、總督의權利義務는 愛蘭自由國會議長에게 移管하고 議長은 法律案에 對한 署名、議會解散의 權限을 保有함 一、其外 國會에 歸屬하는 權限은 愛蘭自由國大統領(首相)에게 歸屬함이다。이것은 다만 英帝國의一分子를 構成한다는 말이오、事實은 獨立과 다름이 업다。

(愛蘭首相 데·발레라氏)

愛蘭은 幾百年來 英國의 危機만 엿보아 叛亂을 이르켜왓거니와 大戰中 獨逸과-通謀하야 復活祭日에 大叛亂을 이르키고 그後도 機會만 잇스면 獨立運動을 이르켯다。一九二一年의 英愛條約에 依하야 自治領의 地位를 어든後도 데·발래라의 共和派는 恒常 完全分離를 主張하야 一九三三年共和黨의 內閣이 樹立되자 十一月三十日 突然 愛蘭의 自治領임을 認한 一九二一年의 條約의 不變性을 否認하고 英皇帝에의 宣誓를 拒絶햇다。英國은 이에 關稅障壁으로써 愛蘭農產物의 輸入을 禁하야 彈壓하라하얏스나 愛蘭은 이에 報復關稅로써 應하얏다。軍隊로써 征伐할수도 업는 處地라、그저 英國의 『片務的條約廢棄는 不成立이라』는 말로 끄틀 막엇지만 이번 皇帝의 退位에 際해서도 이러한 運動을 이르킨것이다。

九、英帝國의危機

이와가티 愛蘭自由國이 自治領의 地位에 不滿하고 完全分離를 要求함은 他自治領과 달러서 앵글로·삭손族이 아닌 때문이어니와 加奈陀、濠洲、新西蘭等도 全然 現狀에 滿足한 것이 아니다。워낙 自治領의 地位가 英本國과 對等的 地位에 잇서서 오즉 가튼 皇帝를 마들고 잇슴으로써 一帝國으로 생각하고 잇는지라、自治領이 언제든지 一旦 叛旗를 들고 議會가 帝國과의 分離를 可決하면 그뿐이게되어잇서 皇帝라는 紐帶를 일으면 英帝國도 土崩瓦解될 危險性이 잇다。이리하야 一九二六年及 一九三〇年英帝國會議는 이英帝國의 鞏固強化를 決議햇거니와 이紐帶는 잘못되면 비斷되기 쉽다。皇帝結婚에 對하야 自治領의 뜻을 尊重한것도 오즉 이때문이다。今番볼드윈首相의 快腕으로 自治領을 撫摩시켯지만 愛蘭問題를 如何히 解決할가 實로注目꺼리다 (終)

八面鋒

◇ 蔣介石氏의 監禁은 事實인듯、아마 被殺說도 八分은 確實한듯。
◇ 何故오하면 國民政府가 張學良討伐令을 내리운것으로 보면 萬事休矣인듯한때문。
◇ 萬一 그러치안타면 산사람을 速히 죽게하는길
◇ 그러나 顧問 도날드氏가 救出運動을 간다는것을 보면 아즉 二分쯤은 生存한듯도하다
◇ 如何間 中國은 將次 一大動亂을 豫想。
◇ 廣西派 어떠라나? 馮玉祥의 動向如何? 國民政府 部內는 또 어떠냐?
◇ 獨裁國의 善點은 獨裁者가 偉大할때에 잇지만、惡點은 死後의 뒤收拾의 混亂。
◇ 蔣介石 生誕五十周年 祝賀式을 最高絕頂으로 漸乎?
◇ 人生無常、世事輪廻、다음世上을 어찌 期約하나。

人事·集會

▲方應謨氏(本社社長) 大邱에出張中 十四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歸任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同上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同上

不再錄號外發行

十四日曉 本報는 蔣介石氏監禁事件으로 事件의全貌를 滿載한 全頁의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습니다。

恩給 朝報閣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鳳會

最新發明!! 百發百中!! 淋疾根治藥 トリコノール 定價 一、八〇 三、〇〇 五、〇〇 製造元 太陽製藥社 京城府內需町 振替京城二五六七九·電話光化門一八四九番

信用第一最高品會社임을 大事業發進 조흔家庭工業 第一 日常의工業으로서 第二 參十萬圓 株式會社

一月新譜
一九三七三 月下待人 鮮于一扇 / 말슴하세요네 李花子
一九三七四 눈물의피에로 金龍煥 / 또다시못오는人生 鮮于一扇
一九三七五 相思의하롯밤 趙影心 / 달마저 王壽福
一九三七六 農夫歌 尹鍵榮 / 달빗을안고 金龍煥
一九三七二 千里夢 李花子 / 스물여덟의가을 金永澤
一九三七七 情熱의戀歌 金龍煥 / 無情한사람(セントルイズブルース) 포리도-루재즈뽀이스
一九三七八 制服의處女 朴丹遠
一九三七九 花草사거리 吳太石 丁南相 趙相誌
一九三八〇 세타령 韓成俊 鄭海時 / 살푸리 해금 金德鎭
포리도-루레코-드

躍進하는飮碧亭!
삼가 四海僉位의 萬福을 祝하나이다 弊店이 開業以來 各位의 칭讚을 바더 業務가 日益隆昌하옴은 全혀 諸彦의 愛護하여주신 德澤으로 아옵고 感謝를 드리는바이로소이다。이러한 恩惠의 萬一이라도 報答키爲하야 今般顧客諸位의 便宜를 圖키爲하야 朝鮮에서는 첫試驗인 各房에 電話를 設置하엿사오며 또弊店에서는 電話로 申請하시는분에게는 自動車費를自擔하야 迎接하기로 하엿사오니 多數利用하여주시옵소서 然하옵고 從來接客에 不親切하다는評이 잇든事務員全部를 解雇하옵고 陣營을 一新하엿사오니 新鮮한 氣分으로 來臨하시기 바라나이다。支配人 韓萬鎬氏는 一身上形便에依하야 解任하섯습니다
京城府城北町一三 朝鮮料理 飮碧亭 白 電話光(一七)一八五五六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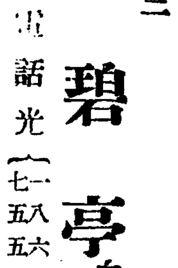
독일코ッホ박사신발명한폐병균엔 肺病新藥 유-고-루
發賣元 有恒社藥品部 京城府苑南町一二九 有名藥房에서販賣함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京城府黃金町五 朝日軍手京城支店

ランラン ポマード 포마-또
그대들을 보기쏘고 아름답게 하는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廠 電光一一五九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特典으로 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 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一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即送) 電本(2)三〇三〇番



歲暮에 祝融亂舞!

昨日市內에 火災五件

요즈음 세모가박두한때 시내각처에서 크고 적은 화재가속출하고잇는데 사소한부주의로 인하야 큰불이나게되는것임으로일반가정에서는 한층더세밀하게불조심을하여야만하겟다 십삼일시내각처에서다섯군데서나 불이낫다

小火一束

▲십사일밤 열시경에시내 돈암정(敦岩町)칠십이번지 김화규(金華圭)집 겨를더허둔 섬에서 불이붓는것을 순찰하던 종로서 내야(內野)순사가 발견하고 집안사람과 협력하고 곳꺼버렷스며

▲십삼일오후세시경 시내와룡정(臥龍町)일백륙십번지 한인수(韓寅洙)의집에서 잘못하야 불이낫는데 곳발견하고꺼서 아모일업섯다고한다

▲십사일 오후여덟시이십오분경에 시내효제정(孝悌町)팔십륙번지 김명수(金明銖)의 시탄창에서 불이난것을 곳발견하고진화하야 무사하엿다

▲십사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 경운정(慶雲町)구십륙번지 김씨(金氏)(六0)의 집에서 화로불에서유담보를 데우는데 마개를 빼지안코 데우다가유담보가폭발이되여 그증긔가 발산하는통에 리웃집에서 불이 난줄알고 소방서로 통지하엿슴으로 소방자동차가 세대나 곳출동하야 소동을하엿스나 결국 무사하엿다

救命美談

火炎속의少年을 危機一髮에救出

孝子町建築場빠락에서發火 勇敢한隣家의理髮職工三名

십삼일오후 아홉시반경에 시내효자정(孝子町)일백사십오번지건축장빠락안에서목수견습입빠수봉(朴守鳳)(一七)이라는소년이 번을보고잇는중 화루불을다어노코 잠을자다가 화루불에서이불에 불이부터 갑작히 맹렬히 타올랏는데 불타는이불속에서 소년이사람살리라고 비명을올리자 염해집인효자리발관(孝子理髮館)리발사 박용긔(朴容基)정종균(鄭鍾均)허대근(許大根)등세청년이 용감히 불속으로 뛰여들어서 타죽어가는 소년을위긔일발의사이에 구원해내엿다불은곳소방대가출동하야 그『빠락』약두평을 태우고는 진화되엿스며 손해는약일백오십원에 그첫는데 전신에화상을 입은소년은 곳부근 장야(長野)의원에 입원치료중으로 약삼개월치료만하면 낫것다고한다 불속에 뛰어들어 용감하게소년을 구원해낸 세청년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리발소창문에 불빗이 비치는데보니까 건너건축장의 나무판자집에서 불꼬치 오르면서 그불속에서 사람살리라는 소리가 남으로 생각할것도업시 그대로 뛰여가서 문이 열리지안허 판자밋흘 뚤고 들어가서 끌어 내엇슴니다 누구나 할수잇는일을 햇슬뿐입니다(소년구출해내인 리발사들)

竹添町火災는 放火로判明

眼鏡店主人犯行自白

【과보】=십삼일 오전네시오십분 죽첨정(竹添町)일정목 김준완(金俊完)안경점에서 일어난 화재는 그화인(火因)에 수상한점이 만허 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전긔김준완을인치하여다가 취조를 계속하는중 일방 철야로 리면관계를 조사한바 드듸어 방화로 확정되엿다 전긔 화재가 방화라고 인정된 리유는 다음과갓다.

즉 김준완은 현재 약천원의 부채가 잇스며 십이일까지에 갑지안흐면 상점경영상 지장이 생기는 일백이십원의 부채와 점포주인인 소산전(小山田)약방에 지불하여야할 일백팔십원이잇섯다 이상사실과 그가 일본동산(日本動産)에 가입한 삼천원보험료를 편취하야가지고 맹렬한 추궁을한결과 십삼일밤에 방화사실을 전부 자백하엿다 그러나 현재 적확한 증거는 나타나지안허 방금 증거수집에 노력하고잇다한다.

眞池洞서有力한 容疑者一名檢擧

中國人慘殺事件詳報

【平壤】귀보=십삼일아침 룡강군 온정리(龍岡郡溫井里)중국인야채상 왕계산(王桂山)(三五)의집에 괴한이 침입하야 왕계산과 그의 가개 당씨(唐氏)(二五)그의장녀 왕금(王錦)(三)을 참살한후 금품을 강탈도주한사건이 잇슨이래 룡강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체포하지못햇다 평남도보안과에서 야상(野上)현사부장이 현장에 급행하여 룡강서와 협력하여 범인을 수사중이다 범죄의현장을보아 너무도 내부의사정에정통한자의 소위인것과갓고 따라서 중국인의소위가타서 광잇는 중국인로동자일대오십여명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마력을내고잇다한다

【新義州】평남룡강군온정에서 지난 십이일에 발생된 중국인한가족 세명의 참살사건은 십삼일 오전까지아모단서를엇지못한 경찰은 극도로신경을 날카롭게하야 범인을엄탐중이든바 십삼일오후한시경 진지동(眞池洞)에서 현금구십륙원을가진 삼십구세의 중국인로동자한명을 검거하여 취조한결과 그는지난팔일 중화군 흑교(黑橋)서 로동하다가 이삼일전 저도(猪島)를거치여 진남포에왓다가 평양으로향하는도중이라고하나 여러가지점으로보아 이상한점이 만흠으로 유력한혐의자로 인정하고 방금 진남포경찰서에 송치취조중이라는바 과연진범인인지 아닌지는 아직알수업다한다

(사진은 참해자의 가족일동)

明年度에開校될 中等校는六校

방금준비중에잇는것도잇서 入學難緩和를期待

명년도에 전조선각지에서 새로개교될 관공립중등학교는 방금각도에서 설립수속을총독부학무국에제출중인데 현재확정적으로설립될것은 함흥(咸興)사범학교、경긔(京畿)공립공업학교(강봉)、대전(大田)녀자고등보통학교、청진(淸津)상업학교(강봉)、전주(全州)농학교、부산(釜山)공립수산학교(강봉)등 륙교이다 이외에 각도에서 남녀고등보통학교와중학교의학급증설을비롯하야 을종실업학교와보습학교가 신설될모양으로 방금준비중이나 아직구체화하지못한관계로 총독부에대한 인가수속은 제출되지안헛다한다

그러나 전긔신설되는 여섯학교에 수용될 인원만이라도 삼백오십명에 달함으로 이에희망가의 예상을 합산하면 약오백명을 명에는 더수용할수 잇게되야 입학난의 조선에잇서야 간이라도 입학난이 완화될듯하다한다

共産軍二道崗襲擊

同胞家屋四十餘戶燒却

金品多數强奪後逃走

【新賓縣】장백현십칠도구(長白縣十七道溝)에 잠복하고잇든 공군 김일성(金日成)일대백오십여명이 지난팔일오후 칠시경에장백현이도강(長白縣二道崗)포래를 습격하고 동포가옥사십여호에방화하엿스며 다수한 물품과금품을 강탈하여 가지고 무송현으로 이거하엿다고하며 집일코먹을것업는 이주동포들은부모와 어린 처자들을 다리고 로상에서 방황하고 잇는참상은 목불인견이라하며 일반은 하루밧비 그들에게현청의 구원책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

卒業證書를僞造하야 假醫師生活六年間

稀代의詐欺漢崔炳圭有罪決定

가짜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증서와 및경성제대의학부 해부실연구생허가장을 만들어가지고 뻔뻔스럽게 의사행세를 하며실습복을입고 당당히 성대의학부[illegible]에 출입하야 자긔가족친지에게까지 의사인톨속이고연구실에잇는 의학서적을 절취한외에 시내각백화점、책점、귀금속상으로 돌다니며 절도질을 하야 근륙년동안 가면의생활을계속하여온 가의사(假醫師)부내원서정(苑西町)칠십칠번지의 칠십호 최일(崔一)최룡철(崔龍喆)최병의(崔炳儀)라는 가명을 가진 최병규(崔炳圭)(三二)에 관한 공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절도 의사규측 위반 피고사건은 작년시월 경성지방법원예심에회부된이래 그간제이예심전중(田中)판사가담임취조중이든바 드듸여유죄로결정되야 십사일 그법원한의부공판에 회부되엿다

사건의내용은 예심결정서에나타난것을보면 대략 다음과갓다 피고는 전북고창군흥덕면공유리(高敞郡興德面公有里)태생으로대정십일년에 경성배재학당에 입학하엿는데 중간에 병으로하야 퇴학을하엿스나 저긔형에는 부형이락담할가 염려하야 퇴학하엿다는통지를안코여전히학교를다니여대정십오면에 그학당을졸업

소화의전사원에서 성대의학부연구생이되엿다하야 연구생허가장을위조하야 그것을가지고 해부학연구실에 드나들며 의학서적을훔쳐내고 대판옥호(大阪屋號)、문광당(文光堂)등 책점과 화신(和信)백화점등으로 도라다니며 서적과귀금속을 훔치고 부내삼청정(三淸町) 김익(金翼)씨외여러사람을 의사인체하고 진찰한후 처방까지 내여주엇다는것이다 그는아침이면 연구실에간다고나가 저역에나 도라와서 집안식구를속혀가며 속여왓섯는데 악운은오래계속하지못하야 그는 드듸어 작년시월말일오후 한시 부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 하전(下田)귀금속상점에서 진주한개를훔쳐다가 본정경찰서원에게 체포되야 드듸어 그의가면생활이 전부탄로되게되엿든것이다

皇太子殿下御祝日

來二十三日御降誕日에 奉祝式을盛大히擧行

오는 이십삼일은 황송하옵게도 황태자전하의 어강탄어사세의생일인데 작년부터 이날을 전국적으로 봉축하는날로 정하엿스므로 경성부내에서는 애국부인회조선본부 및경성부분회주최와 경성부후원으로 성대히봉축식을 거행할터인데 이날오전일곱시성모회 오전열한시에는 봉축연회(祝宴會)를 올리며 오전열한시부터 조선신궁에서 황태자전하어성육 어안태기원제를 거행하고 유치원 육아원 초등학교 녀학교 기타아동및 모성중의시설단체에서는 일제히 식전봉축회를 거행하며데파트는장식 활동사진기타 다수의집회장소에서도봉축후는 봉축문자를 게시할터이라한다

日曜日의輪禍

東大門署管內에四件

요사히 세말(歲末)을 저주하는듯이 낫거리에 전개되는비극—교통사고가 칠신을어간다—

일요일인 십삼일 동대문관내에서 생긴교통사고만이 다섯건—

(가) 오후세시오십분 종로사정목 이십일번지압길에서 락원정(樂園町)십이번지 상일전공사(上一電工社)점원 강긔창(姜基昌)(二五)이가 마차에치여 열흘가량의 부상을하엿다 가해자는공덕정(孔德町)삼백팔십륙번지 마차군 신상규(申相圭)

(나) 밤열한시사십오분경종로오정목백칠십삼번지아페서운전수의말을듯지안코 운전대에섯다가 떠러저부상한사람이잇다 그는 신당정(新堂町)백육십이번지 모은행원 권긔원(權麒源)(二二)이라고

(다) 밤열한시오십분경 종로오정목백팔십륙번지 압길에서 종로오정목 이백칠십칠번지의이호 (張鎭榮)(二二)의자전거와 황금정일정목백구십이번지 평안(平安)『닥시』운전수 서동석(徐東錫)(二三)의운전하든 자동차와 충돌하야 장소변은 일주일가량의부상

(라) 동시각 종로륙정목백번지 민룡식(閔龍植)씨의 맛아들 병규(炳奎)(二)는자긔집근처에서 공평정(公平町)륙십오번지 박창신(朴昌信)(三三)의 운전하는자동차에치여 열흘가량의 상처를당하엿다

陸軍官舍를 出沒한竊盜

강원도 김화군(江原道金化郡)출생의 배상옥(裵相玉)(二三)과경남진주(慶南晋州)출생의 김청한(金淸漢)(二三)은 지난시월말부터 한강통(漢江通)륙군관사(陸軍官舍)를 전문으로 절도하다가십삼일오후 본정서에 인치되엿다피해액은 약사백원이라고한다

樓上町强盜送局

罪名은强盜及營利誘拐詐欺

지난달 이십일일밤시내 루상정(樓上町)사십오번지 김덕영(金德泳)의 집에 침입한 강도범인고옥봉(高玉鳳)(二五)은 지난오일봉천(奉天)에도망해잇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출장하야 체포하여와서 그동안 그서에서 엄중한취조를 계속하여오던바 이제 그취조가 끗치낫슴으로 십사일오전열시경에 일건서류와 식도장물등 증거물과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엇다 자긔처제를 유괴에팔아먹은 사실도 판명되여 죄명은 강도급영리유괴사긔(强盜及營利誘拐詐欺)라고한다

治山治水恒久對策

河川改修費決定

初年度는二千百萬圓

치산치수(治山治水)의 항구적대책에관한 총독부의 적극방침으로 개소의 개수비이적어도 오십만원의신규 요구비는 대장성(大藏省)에서 약간의 삭감을당한모양인데 명년도부터 사업에착수할것만은 확정하야 명년이강의 개수는 오개년 계속사업으로 초년도의분은 긔정계획의분 일백칠십만원을합하야 대계륙백만원정도로 될터이다 결국전북 동진(東津)강의개수가 명년도에 착수하게 될터이라한다 이외에 지방하천의개수비는 오개년계획으로 칠천오백만원을 가지고 개수할터인데 명년도의분은 일천오백만원이 결정되엇다 그럼으로 결국명년도의 하천개수비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것을합하야 이천백만원에 달한다

寒氣로機關故障

第三列車延着

십삼일 오후아홉시오분에 부산(釜山)을떠나 봉천(奉天)으로 가는 제삼렬차가 경부선시흥역(始興驛)부근을 진행하는중혹독한 추위로 말미암아 긔관차에 고장이 생겨서 오도 가도못하고잇다는 급보를 밧고서 룡산긔관고(龍山機關庫)로부터 곳구원렬차를 현장에 보내여 정각보다 약두시간이십사분이나 늣게 십사일오전열시이십사분에경성역에 도착하엿다

薺洞町에棄兒

십사일오후 네시사십분경에시내 제동정(薺洞町)사십륙번지의삼호리종우(李鍾雨)씨의집대문간에생후 한달밧게안된 옥동자를 누가버리고갓는데 이사실을들은 소관종로서에서는 그아이가 비단옷을입은 아릿따운아이임으로 특히 그배후를 엄중수사중이다

運動具店專門賊

례지정(禮智町)이백칠십번지박준이(朴俊伊)(一七)는 절도혐의로 십삼일밤 시내본정서에 인치되엿다 그는지난삼월부터 상순경 시내중학정(中學町)최학긔(崔學基)운동구점을 비롯하야 시내각운동구점을전문으로 『잔바늘쪼분』등을절도하고 다니엿다는데 그피해건수는모두설흔 아홉건으로 피해액은 약천원에달할 모양이라고한다

假金詐欺犯은

黃海出生의好色漢

귀보=시내 화류계방면(花柳界方面)을 중심으로 『가금반지』를 팔러다니다가 시내본정서에게 검거당한 대총승사(大塚勝司)는 그후취조한결과 황해도 신천군(黃海道信川郡)출생의 리성학(李成學)(三七)으로 판명되엿다 그는일즉일본내지로건너가서 로동을하엿드니만큼 능숙한일본말로 취조경관을속이여오다가 다소『사루라』가석기고 본적지가흥연하지안흔것으로 엄중취조를계속하엿든바 전긔와가티 거짓일홈을 쓰든것이 발각되엿다 그리고 그는 일본말을잘하는 관계로 금융자사인 모양으로 꾸며가지고 일본내지 각지에서 젊은녀자를꾀이여 판계까지매주사실도 오늘건벌과되엿다 그중녀자들은 현재일신다서달로그남자만밋고잇든 일본녀자도잇다고한다

仁川稅關某課長의令息自殺

십삼일 정오경 인천세관(仁川稅關) 모과장(某課長)의 아들 흑목정도(黑木正道)(二五)는 자긔집에서 렵총(獵銃)으로 자살하엿다고한다 원인은 아즉 불명이나 이전부터 다소 신경쇠약의 긔미가잇섯다고한다

齒科科長의盜難

목리盜難

십이일밤사이에 시내소격정(昭格町)의전(醫專)병원 치과과장실(齒科課長室)에 걸어둔 야택(野澤)과장의 이백원짜리 가죽목도리를 어떤자가 도적하여갓슴으로 소관종로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찾는중이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 天氣가조코 明日은 좃호릴것이다 京畿道全區도 同一하다

昨日最高 一、一
同 最低 七、一
今朝最低 零下八度
今日正午 ○、一

十三日開業 すき焼専門 朝鮮料理는가지수로提供함 宴會場充分 京城淸進町一六七 聚園 電光二六九三番

日本特許局登錄濟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藥物治療에 失敗한 患者여!

조타는약을 다써보앗서도 낫지안는림질이거든 이 긔게를 쓰시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여도 과학(科學)은 사람을 속이지안는것입니다 과학에서나온 이긔게는 반드시당신의긔대를 저바리지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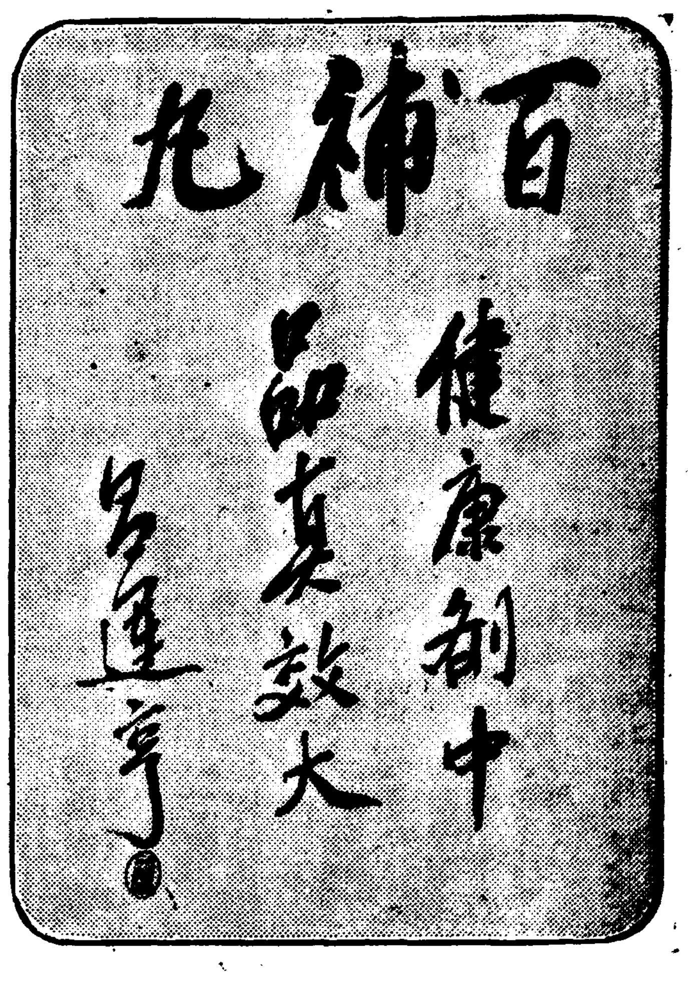
科學療法에 새로히 着眼하라

頒布代 一具 九圓二十錢 (小包料荷造費並朝鮮內四十五錢其他六十一錢)
(淋疾自宅治療法無代進呈 要二錢切手)

京城古市町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昌成町七三 發賣元 平山幸運堂
電話光(長)二一一九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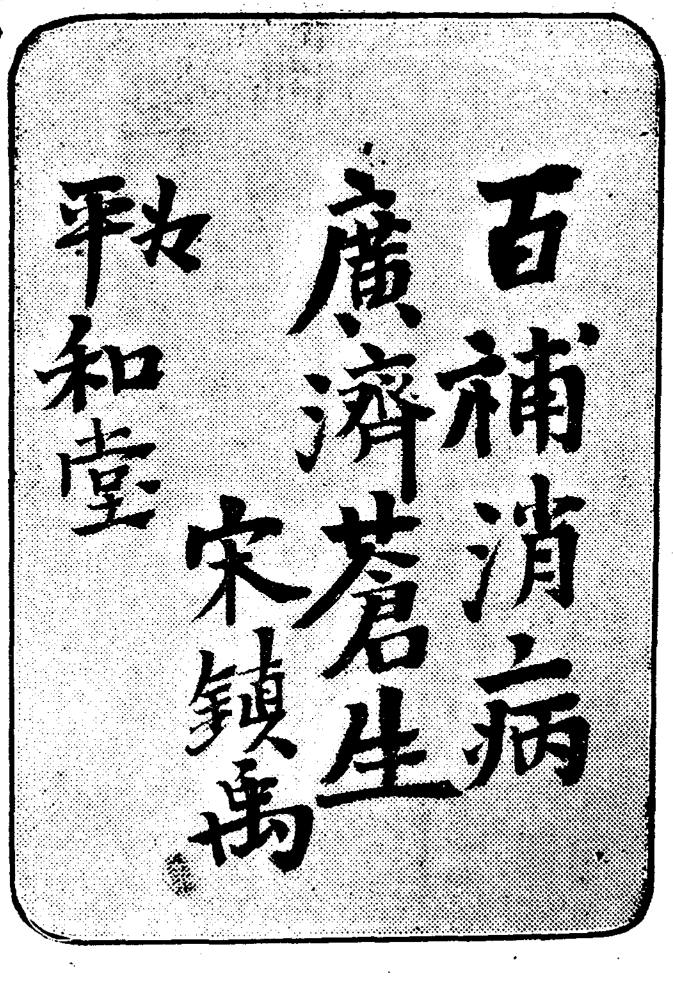
聖賢君子·勸善懲惡

中央日報社長 呂運亨先生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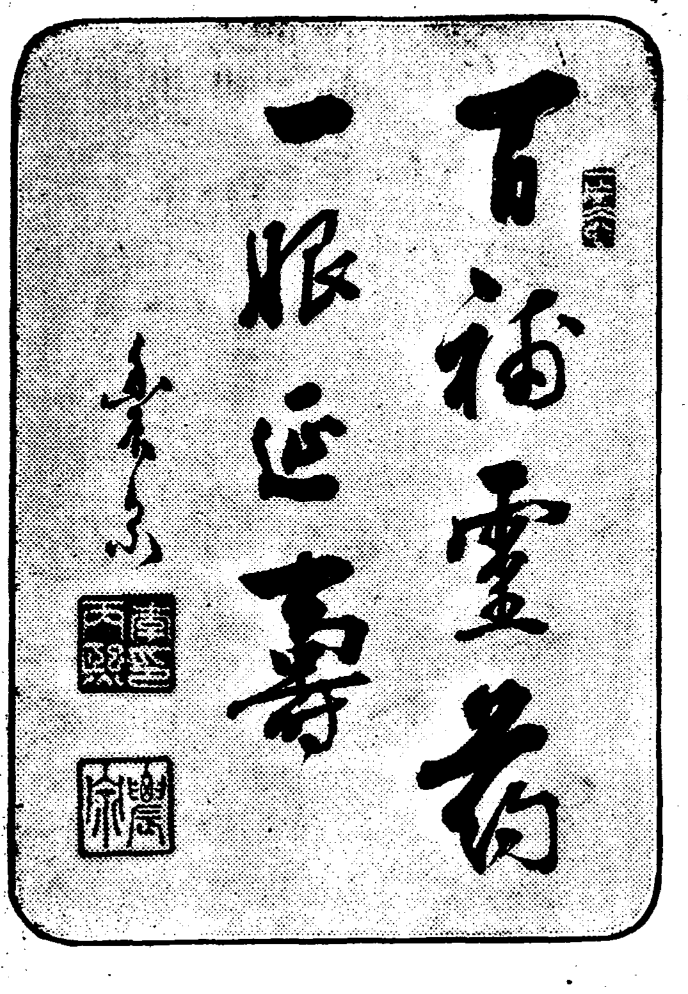


前外務協判 體育會長 尹致昊博士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東亞日報社長 宋鎭禹先生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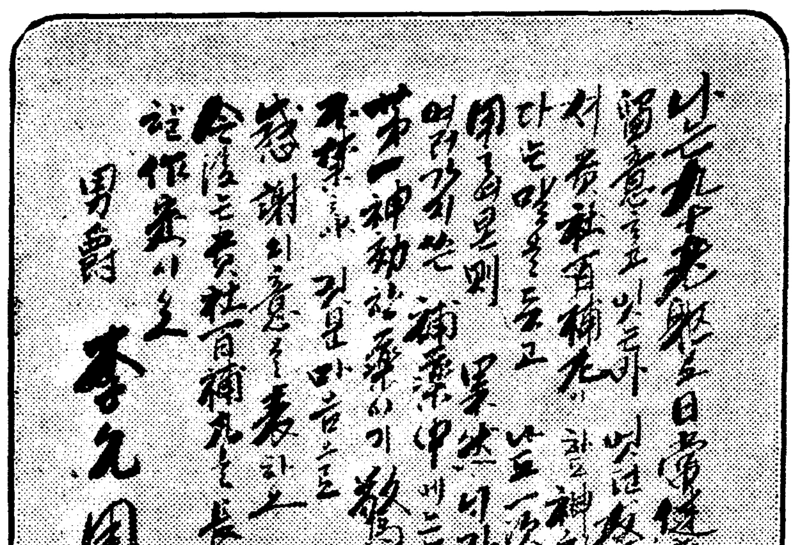
李王職 李丙燾先生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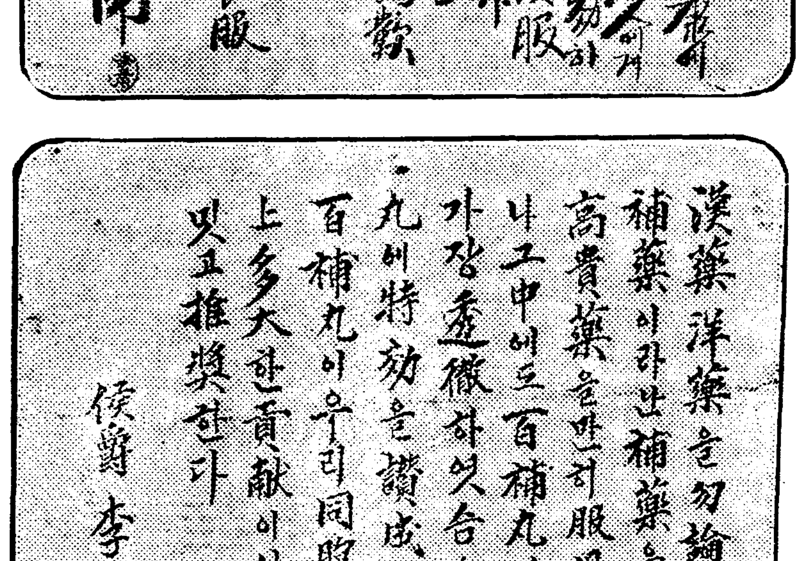
●自古로聖賢君子는 善한것이어면 勸하고
●惡한것이어면 때 위합니다
●現代의聖賢各界名士께서 百補丸을 推奬하여주신것은 勸善懲惡의意이오며
●平和堂의 無上한榮光이올시다

●貴族 兩班 各界名士께옵서 慨慷하옵시게도 百補丸의効力을 認識하여주시고
●百補丸을爲하야 同胞의 健康을爲하야, 이가치 貴하신글을 주시니 鴻恩을 報答할 道理가 업삽고
●오즉 藥品精製에, 더욱注意하야, 글을주신분들에 面目이 빗나도록 勉勵하기를 自誓하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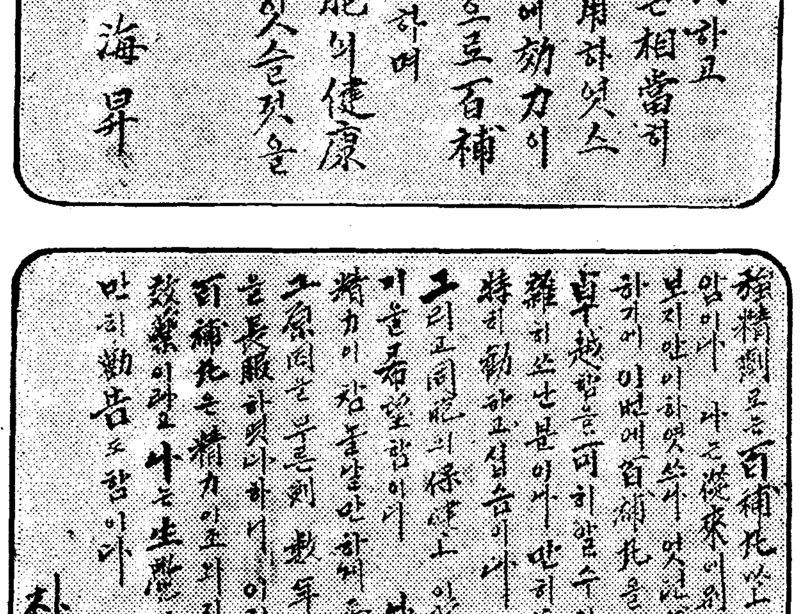
前宮內大臣 男爵 李允用閣下의推奬文



侯爵 李海昇閣下의推奬文


漢藥洋藥을勿論하고 補藥이라난補藥은相當히 高貴藥을만히服用하엿스나 그中에도百補丸에効力이 가장透徹하엿슴으로百補丸에特効을讚成하며 百補丸이우리同胞의健康上多大한貢獻이잇슬것을 밋고推奬한다
侯爵 李海昇

和信社長 朴興植先生의推奬文



●委托販賣店募集中 地方有力醫師藥生 有力藥店에限함
●特大型カレンタ百部式 責任所店名印刷無料進呈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 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 平生無病健康長壽劑

世上은 조흔 世上이다

一、昔日에난 特別한貴族兩班만이 쓰던 秘方補藥인데
一、現代에난 누구던지 自由로 쓸수잇게 되엿다

男女老少
一、老年이쓰면 更少年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青少年이쓰면 精神이聰明함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劑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에게一劑無料進呈

藥注文은 送金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 하시요
一、振替京城五番 平和堂
二、朝鮮銀行本店內 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 平和堂

萬金不換의此事實

보시요! 朝鮮의貴族、兩班、大臣을비롯하야 各界朝野名士의 最大賞讚 愛用 推奬을 밧는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임니다

●돈잇고 地位잇는 貴族名士等의 推奬文과 賞讚은 絕對로 千金萬金으로 살수업는것이事實임니다
●돈보다도 自身의 名譽와地位가 그분들의 生命이며 무엇보다 第一尊重하고 貴한것 임니다. 이러한분들이 一個 藥會社의 營利를爲하야 私情과 돈의 팔니여 特効가 無하고 高名치안은藥을 거짓賞讚과 推奬文을 쓸理는 絕對 萬無함니다
●오즉 百補丸의 卓越한 効力이 實로 國民保健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되엿기때문에이러케 貴族 名士諸氏께서 이가티 最大한 賞讚과 最大한 推奬文을 眞實한 마음으로 써주시게 된것임니다
●이것이 補藥界의 大王으로 君臨한 最大의効力을가진 百補丸이아니면 엇을수업는 最大의榮光입니다
●그럼으로 百補丸의 効力은 只今다시 區區한說明을 할必要가업사오니 廣告보다 實際事實을밋고쓰서요
●世上에는 別別 虛無誇大한 廣告도 다 만흐나 事實百補丸과가치 効力조흔藥은 다시 업습니다

陽氣不足、氣血不足은長壽못할前兆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술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한사람
●腦가 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 목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 衰弱한데 特効함
●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됨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은더욱速効함니다
●눈이발가지고 皮부가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 陰陽雙補되는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임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藥이면다藥이아니다
藥다운藥을쓰시요
●第一이라고만하면다第一이안입니다

참말第一인지는
1、事實로 證明하고
2、科學的으로 證明하고
3、先服者가證明하여야
참말第一일것입니다

三大證明

事實證明
百補丸은 古代中國道師葛玄眞人의 千古秘方인것이 事實이요 現在平和堂을 通하야 千萬사람이 累試累驗하야 그効力을 實讚하는것이 事實이요、朝鮮에서 엇던藥보다 第一만히 歡迎밧고 第一만히 팔니는것이 事實임니다。이갓흔 大歡迎이갓흔 大賣行은 朝鮮에서前例업는事實이며 百補丸이 補藥中第一効力이 特大하다는것을 證明하는事實임니다
●京城四大郵便局이 이事實을 統計數字로證明합니다、遞信關係人事는 郵便局에 아러보시요 數字事實이 證明합니다

科學的證明
百補丸은高貴漢方補材二十種이理想的으로 配合된古代秘方藥인바身體各部의根源을補하는同時에陽氣不足、神經衰弱、胃腸衰弱等을비롯하야身體各部의虛弱症狀을治療하는二重作用이有함니다百補丸性分中에는가장エネルギー量과カロリー量이第一만코ホルモン性分과造血性分이第一만흠으로全身의勝氣陽氣가暴風中의火력가티이러남니다

先服者證明
百補丸을服中한사람으로그効力을感歎치안는사람이업슴니다京鄕을勿論하고各界有志紳士各界名士諸氏가百補丸을服用하여보고그卓越한効力을말로書面으로推奬文을各其親知友人에게傳하게되야 先服者의말을밋고 百補丸을注文하는분이多大數임니다 이가티 感謝狀、推奬文、先服者의말들을밋은 注文狀이暴風가티 踏至하니 百補丸의効力은 二重三重으로證明되고잇슴니다 百補丸을 쓰고 그効力을自己만알지말고他人에게 傳하는것은勸善懲惡原則에依한積善이되는것이오니 조흐면 조타고 말合하여주시요

廣告보다効力
百補丸이 이러케 만히팔니고 先服者가 効力을證明하는것은 廣告가큰까닭이아니요 藥効가 큰까닭임니다、只今 누가 무슨廣告를 암만크게낸다드라도、數萬服藥家가 證明하는 百補丸의 藥効보다 勝할수는 絕對업습니다 廣告보다 藥効를밋고쓰시요

販賣所
一、本社 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 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五番●電話光六三二番

가정

세찬은 다만 정표 갑세 고하는 무관

"보내서 생색잇고 바더서 필요한것" 자칫하면 허례로 흘러

이해가 이럭저럭 저물어서 새해도 한 보름밧게 남지 안 햇습니다。자연히 이런 일、저런일로 분망한데다가 이곳、저곳 세찬을 보낼 걱정도 적지안습니다。한 편으로 생각하면 폐롭게 무엇을 사보내고 밧는것이 다 귀찬코 섭섭한 예절갓지오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친한 사람끼리 일년에 한번씩 정을 표하는 것으로 그다지 나쁜 풍속도 아니올시다。단지 정으로 나가지 안코 체면으로 나가자니까 힘에 겨운 것을 서로 주고 밧게 되는지라 고만 피차간의 쓸데업는 비용을 드리게 되니 그것이 결점이올시다。

세찬이라고 반듯이 값진 물건、비싼 상품을 보내야 맛이 아닙니다。그저 그를 잇지 안코 생각한다는 표시만이면 아조 족한 것입니다。그럼으로 돈 주고사는 것보담은 집에서 손소 맨든 것이 더 좃습니다。갑시야만 코 적고간 그정성이고 마음 것입니다。그러나 한곳、두 곳도 아니요 이로 다 어떠케 그런 물건만을 선사 할수야 잇겟습니까? 할수 업시 사서 하거들랑 그사람이 귀중하게 녀길것、긴요하게 쓸것을 사보내는것이 어떳습니까? 그런점으로 보아서는 그지방 그지방의 특산물이 해롭지 안습니다 섯사 다른데서 살수가 잇다고 하드라도 즉접 그지방에서 보내준 그것은 더 귀중하게 녀길 것입니다。또 그런 특산물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꼭필요한것도 무방합니다。자긔가 사려고 계산하고 잇다가 그것을 밧고 보면그역 생광스럽게 됩니다。

◇

그러나 밧는 사람이 누군가를 딸아서 선사도 자연히 달러 질 것입니다。즉 자긔보담 손우인가 손아래인가 또는 별배인가등의 말슴입니다。손우라면경의를 표시할 물건、손아래라면 사랑을 표시할 물건 변배라면 그저 보통이라야 합니다。손우에다가 사랑을 표시할 물건이라든지 손아레에다가 정의를 표시할물건을 보내서는 도리어 재미가 적게됩니다。그런것상

업시 세밋세초에 필요한 물건으로 보내는것도 한방법입니다。그런것을 보내는것은 당장 필요하게 사용하야 달라는것으로 까다롭게 따질것이 업습니다。친척어른에게는 양말이 아조 훌륭합니다。예전에는 효도버선이라고 해서버선이 어른께대한 선사가되야 왓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한번양말로 밧구는겁니다。

◇

단지 와이샤쓰라든지 넥타이가튼것은 다각각 자긔가 조하하는 빗갈도 잇고 모냥도 잇는것이라 그것을 모르고 아모거나 사보내서는 웃읍니다。만일 정히 그런것을 사보내고시픈 생각이잇거든 차라리 돈으로보내고 자긔더러 사라는편이 낫습니다。

"겨울옷으로는 인조견이부적당"

美容師 吳淑根

지금 전세계에서 일년에생사(生絲—면주실)는 일억이천만폰드가나고 인견(人絹)은십억폰드가량이나납니다。일본으로말하면 전세계에서나는생사의칠할이나 나는나라인데 인견은생사의삼배 즉 이억오천만폰드가납니다。이처럼인견은 최근에와서 무한한발전을하고잇습니다。

×

그런데 인견이겨울의복으로서 다른의복감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우나 하는데대해서 농림성잠사국(蠶絲局)에서 조사한바를보면 생사 양모(羊毛)면사(綿絲) 인견 이와가튼순서로 이네가지 중에서 의외로생사가 그중보온력(保溫力)이 만흔것을 알앗습니다。

그것은 이네가지옷감을 가튼 두께와 가튼조건(條件)으로 두께가지고 사람의몸이 발표후에 특수한장치로 체온(體溫)이 따그로 내뿜기는분량을 계산하야 열량(熱量)의소모(消耗)를 조사한결과 생사가그중 열의손실이적고 그다음이양모 면사 그리고인견이 그중만흔데 이섭씨시간이내에 인조견옷에서 손실되는열량은 생사에비해서 오백내지일천「칼로리」가 만타고하얏습니다。

×

다시말슴하면、생사는열을적게 빼아내는까닭에 몸에서나는체온(體溫)이 그대로몸에자저잇게되여 보온력(保溫力)이세다는말슴입니다。

사람이하로동안에 남자는삼천「칼로리」의열량을보충해야만되는데 인견옷은일천「칼로리」나빼아내는까닭에 더욱이 발육이왕성한어린아희들에게는 인견의복은 결국해가된다는말입니다。

×

여긔서 한가지 의문은 옷감으로서 인견은 그러타 하거니와 양모가생사보다 더운것은웬까닭이냐하면 모직은 열(熱)의 불량도체(不良導體)인공긔를 만히품어가지고잇는 때문입니다。만일생사도、모직과가튼 조직(組織)으로짯는다면 양모이상으로 더울것입니다。풀솜이무엇보다도 더운것을보시면 아실일입니다。

또 생사의특질(特質)의하나는 특수한자외광선(紫外光線)을발산(發散)하는일입니다。인견과생사를 똑가튼조직(組織)으로짠 헌겁을 해볏에한시간 동안쪽여가지고 암실(暗室)에서 사진건판(寫眞乾板)에작용을 식히면 인견은 아모작용도업스나 생사는작용이생깁니다。다시말하면인조견(人造絹)과 진견(眞絹)을해볏에 쪼여가지고 죽어가는곡물의 몸에다가 덥퍼두엇드니 비단편것으로덥흔것은 이상얼동안이나 생명을부지하게되드랍니다。

×

이사실을 실제에 응용하야비단이불을해볏에쪽여서 밤에덥푸면 자는동안에 자외선을내뿜겨서 몸에유조할것은 사실입니다。

위생상으로보아서 비단이이와가티조키는하지만 갑시비싸서인조견을쓰게되는것이나 아모조록 의복감을선택하는데도 것만곱게 이아니라화학적특질을연구하야선택할필요가잇습니다。

근일에 화류계에서 인조견을 조히 아니입고 진견(眞絹)만입는것이 사실인데 호사로서만아니라 위생상으로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이것으로보아서 차차 조선명주나 기타 비단이귀중히 쓰히게되리라고 깃버하는 바입니다。

가정의학

어루러기

問 작년여름에 산에서 일광욕을하다가 우연히 잔등에「어루러기」가생겨 매우고생입니다 (東大門外 劉)

답 당신병은 어루러기에틀림업겟스나 한명으로는 전풍(癜風)이라는것이가 합니다。그런데 이것은 일광욕과는 별관계가업고 다만 일광욕을하라고 몸을 버섯슬때에 우연이 눈에 띄인 까닭에 일광욕을한까닭에 생겻다고 생각한것갓습니다。원인은 전풍균이라는 세균으로이합니다 그리고 땀이만이나는곳에 생기기쉽고 특히 여름철에 성합니다。잘낫지만은 재발하기쉽습니다。다 듣은『요드정끼』를 바르거나 五—十%사리찔산 알콜을 바르십시요 약방에가면 어디서든 지팝니다 때알등을 조이는것도 조습니다 (大學病院皮膚泌尿科)

무단히쇠약해저

問 금년이삼오세남자인데 무단히건강이 날로쇠약하여지며 따러서 신체가 극도로 수척하야 지금은 피곤이 드러나게됩니다 병명과 치료법을 가라처 주시옵고 비만제(肥滿劑)를 가라처 주서거버립니다 (高山三郞)

답 무단히쇠약될때에는 여러가지 원인이잇습니다 폐병으로 흑은 소화긔병으로 그리될수도잇스니 한번내과진찰을바더보시게하십시요 비만제를복용하더라도 원인이낫기전에는 나홀수업스니 원인을아러보심이 더조흘듯합니다 아모리원인이업스시면 특별히비만제를사용치안하시셔도 히비만제를사용치안하시셔도 이업슬것이오나 만일사용하신다면『인수린』과『로지논』이란 주사를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약의주사는 부랑의관계가 잇서 쉽히 관계될으로 가정치료에 적당치못합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애기를안어서 재우지맙시요"

위생상나뿐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안어서 재우는것이 보통입니다。어린아이가 한두살적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나 다섯살이상 여섯살쯤된 아이까지를 꼭꼭안어서 재우는어머니가 잇습니다 이것을 위생상으로볼때는 여간 해로운것이 아닙니다

그리유는 어머니품안에서 때울게 잠잘것가트나 실상 아이혼자자는것보다 이불귀가질렴히 지안흘뿐더러 여긔저긔틈이 생겨서 바람이들어오므로 몸이추어질 염려가 잇습니다 아모리 귀여운 아들이나 딸아이라하더라도 어렷을때로 볼때는 원인지어채하고 마음대로 몸을 놀려수도업고 자연스럽은 자리로 다 잘수업스며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리하야 자연 어색한생각과 몸이 마음대로놀려지지안흘때는 잘도잘오지안코 밤중에 여러번 깨게됩니다

혼자서 잘수업다는 어린아이는 전부가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어렷을때부터어머니가 나쁜 습관을길러준 까닭입니다

그럼으로 어린아이는 어렷슬때부터 제혼자마음대로 궁글며 자도록습관을 드려주어야합니다

자라서 감한이나 잔자를할만히라는 아이는 대개가 늦도록 어머니품안에서 자는버릇을 가진아이들입니다

우리차지

『빨래』

어머니는
이추운날에도
찬물에 손을당거
빨래를 하서다。
그것을 다듬짜면
팔이 아프실테지。
그뿐인가
몃칠동안은
바느질하시기에
밤을 꼽박 새서야지。

(윤명학)

유-모어小說 姓女씨 (三)

金熊超 作·畫

晩學一年生 (10)

몽백군의귀에 세시치는소리가 어렴풋이 들렷습니다。성녀씨는 자정을 오정으로아랏는지 그때까지도 부지런을떨고 잇섯습니다。

잠들어시헤 머리마러서 져고리주진것을 보앗는데 여지것 그것을 주무르고잇나! 몽백군은 이런생각을하면서 눈을 번떠습니다。

『얼그리오래헤。잘루안자고…』

성녀씨는 마음노코 머리트는 연습을하다가 깜작 놀랏습니다

『아이머니나! 한잠 자고 이러나커이데……』

『도항을 갑작정인가 왜 머리는 트르라고 야단이야』

『아이 망칙해라。머리는 무슨 머리』

『트레머리는 그만하면 됏서』

『펀 찬어요?』

성녀씨는 그제서야 헤헤!…우섯습니다。

『남 암만 생각해봐도 걱정되는것이 오맨시하구 거룩거리야……어듸 한번 차려보지그래』

『아직 다리지두 안흔걸?』

『다리지안흐면 어떤가、위선입어봐。그리고 고칠데가 잇스면 지금고처야지』

몽백군은 드듸어 기침을하시고 마럿습니다。——

성녀씨의 옷맨시를 감정하고 또구두루신켜 웃목으로 왓다갓다하게하야 거룩거리를 교정시키면서 한참 부산햇습니다。그리다가

『그만하면 됏서 칠십점은되겟네!』

하고 몽백군은 후한점수를내렷습니다。

이러저러하느라고 날이밝엇습니다。성녀씨는 마당으로 나가고 몽백군은 전긔가 나가기전에 읽어버릴양으로 조간총손에 드렷습니다。

제일면 정치란은 제목만대강 읽어넘기고 그다음 제이면으로 가서역시 꼭대기로부터 훑러나리는데 삼단짜리 인물사진이눈에걸렷습니다。

—이게뭘까? 백선헤이나 최송설당이냐!

유영사업가가 생겨낫는지몰에 감올가지고 삼단으로 황으며 시를 읽어봣습니다。

『人生은七十부터?』

新年에 晩學一年生

가륵한向學心에 感激되어

「아ー장한일이다! 성녀씨에게서 어린조선귀인은 세상에또업습니다!……여봐——출드려와」

몽백군은 감격에넘처 안해를 소리처불럿습니다。그리고는 그다음기사를 바쁘게 나려읽엇습니다。

—인생칠십— 이나이는 인생의마지막을의미하는 것이다。자고로 이만한수명을 보존하기도 등문한일인데 오히려 이회년을 인생의 처음시작으로알고 초등학교의교문을두다린 갸륵한노인이 잇다—中略—시내 동이정××번지 신화찻씨의 작이일의부인성씨인데 시내인사정××학원을 훈두시경 방문하고—中略—보통과 제일학년에입학을 지원하엿는데 동교교무주임 임정순씨는너무 감격하야………」

몽백군은 떠읽을 용기가 나지아니햇습니다。꿈이나 아닌가하

고 두로인의 사진을 다시한번 드려다보다가 두다리를 쪽뻣고 뒤로 벌렁드러누어버렷습니다。

『왜 그러시우』

성녀씨는 영문을 몰라 애가 탓습니다。

『눈물 죽이라는 망녕이구 그 망녕이!』

몽백군은 천청만 빤히 처다보며 혓소리한듯햇습니다。

『망녕이라니 누가망녕이란말이요』

『신문을 좀봐』

『어디』

성녀씨신문을드렷습니다。한문짜는본시 한자도모르니까 미다시는아르코업고、어디를보아야할찌 얼떨떨햇습니다。그러다가그 까막눈에 사진은 띄웟습니다

『아버니 어머니아니우……아이참 무슨일로 신문에낫슬까!』

남편이 녀슬이른것을보아 두로인이 꼭무슨일을 저지른것만 가탯습니다。

『자네 학교에 못하게하느라고 헤방을노섯서』

『어떠케?』

『그학교에 먼저입학하셧스니 어떠커나』

『어쩐지 갑밥에 그로인들이꿍예윗더다』

성녀씨는 만수처럼 눈을 감꼬안자 헤똥을햇습니다。 (계속)

婦人病自宅治療書를無代進呈

결혼전후에 한번식 읽으시라

먼저 말슴드리고자함은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다른賣藥業者들과가티 賣藥만을目的하고 맨드른說明書와는 全然內容이달으다는것을알어주시기를바라나이다 從來에 一般賣藥業者들이맨드는說明書에는 무슨수단으로든지 그藥을 팔기에만專心努力하므로 한번팔기만하면 그後부터는아무責任이업고 또한 質問하는말에는無回答、不親切하기짝이업스니 이것은 한번藥을팔기만하면 고만이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절대로그러치 안습니다 이책은三十餘年間研究한經驗과名醫와學識이만흔 下山藥學博士外五大醫學博士의 親切한 指導를바더서맨든책이므로 內容이充實하고正當하오니 安心하시고 婦人病환자는 治療하시기를바라나이다 더욱이衛生智識이普及되지못한朝鮮婦人들은 處女時代에는부그럽고 結婚後에는 시부모슬하에서 시집사리하기에골몰하야 婦人病이 잠복되것을알면서도 여러가지사정으로治療하지못하는분과 或은모르고서治療를못하는婦人을爲하고同情하는意味로서 누구던지알기쉽게 朝鮮말로소개이오니 어머님은 따님에게、따님은어머님께、남편은 부인에게、형은뉘동생에게 一家族이 다가리울하시고 健康한婦人은衛生智識을미리잘알어두엇다가、後日에 參考를하야주시기바라오며 其他모든婦人病에對한質問에는 親切하고正當한回答을하고 또한 効果잇는藥品도紹介해드리기爲하야朝鮮婦人部를設施해잇스니、만히利用해주시기바라나이다。이婦人病自宅治療書의內容을대강말하면

◇月經不順의原因과治療法
◇子宮出血의原因과治療法
◇대하증의원인과치료법
◇子宮內膜炎의原因과治療法
◇子宮外膜炎의原因과治療法
◇子宮實質炎의原因과治療法
◇상한두통의원인과치료법
◇히스테리의원인과치료법
◇女子淋疾의原因과治療法
◇手足冷症의原因과治療法
◇不感症의原因과治療法
◇不姙症의原因과治療法
◇姙娠中의조섭법

其他모든子宮病에對한치료법과 産前産後의조섭법과 婦人病相談篇이잇스니 남에게말하기 어려운女子의病을 이책에依하야 아무도몰으게 조섭을하며 적당한藥을쓰시고 全快하야 남과가튼幸福한生活을하시기바라며從來에 잘못하야 이것저것信用업는藥을服用하고 藥効는엇지못하고 病은점점重해저서 失望落膽하는분들은꼭하야 이책을無代進呈하오니 꼭한번 읽어보시기바라나이다

이책에婦人病良藥으로發表된『命之母』는七大醫學博士가 藥効를證明해주신婦人科專門藥입니다 또한이와가티七大醫學博士의게 藥効證明을바든약이니만큼 高貴한藥材를使用하야東洋婦人의體質에꼭맛도록製藥한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면 얼골에화색이돗고·주름살이펴지고 아름다워지며 허리와손발이더워지고 顯著히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毒素를全部滅殺식혀주는結果 女性의호르몬이 旺盛하야지며 대하증이근치되고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當然히姙娠出産하게되는것입니다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오며 藥價는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이고 特히本舖로 여러분의病勢를자세히記入해서보내시면 病勢에꼭맛도록 [加減한命之母]를 代金引換으로 보내드립니다。끄트로 注文하지안는분이라도 婦人病自宅治療書를請求하시면 無代進呈합니다

命の母

申込하시라!

笹岡省三藥房 東京市京橋區入船町三 振替東京五〇五〇番

550號 特製羅紗オーバー 日本毛織製品の特製厚地をとは稀く入念 (厚ラシャ生地)…洋朱子裏…黑色…紺色 寸法…鯨尺…二尺八寸…二尺九寸 特別卸値段 片前型一着 金六圓八十錢 三尺 三尺一寸 兩前型一着 金七圓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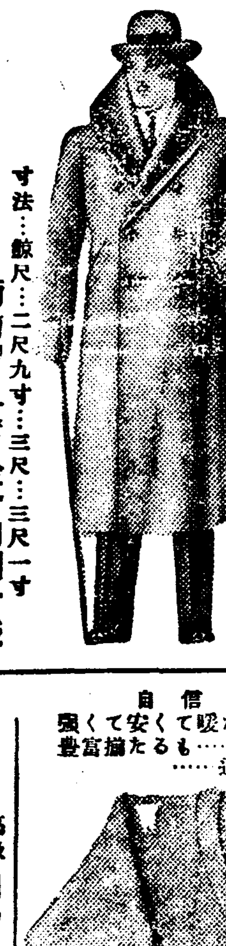
900號 朝鮮服向廣袖オーバー 一着 金七圓三十錢

600號 高級ベロアーオーバー 本ベロアーの極厚地にて誠に暖く輕き良品なり 仕立は別誂向高級仕立朱子裏絹裏付 色合は黒、紺御注文の時寸法と共に御指定下さい 寸法…鯨尺…二尺八寸…二尺九寸 特價の品 特別の卸値段 片前型 金九圓八十錢 寸法…鯨尺…三尺、三尺一寸 兩前型 金十圓六十錢

950號 朝鮮服向廣袖オーバー 一着 金十圓九十錢

650號 高級紳士用本ラクダオーバー 絶体高級品…他店では出來ぬ品 色合は…濃紺色…黒色御注文の時寸法と共に御指定下さい 寸法…鯨尺…二尺八寸…二尺九寸 片前型一着 金十五圓二十錢 寸法…鯨尺…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兩前型 一着 金十六圓二十錢

700號 紳士用流線柄オーバー 生地は純毛厚生地色合と柄行は實に申分のない青年紳士の希望通りなり 裏…絹縞裏 柄は…斜線柄…霜降柄色合…濃茶…濃ネヅミ色 寸法…鯨尺…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兩前型 一着 金十三圓八十錢 ベンド無と付と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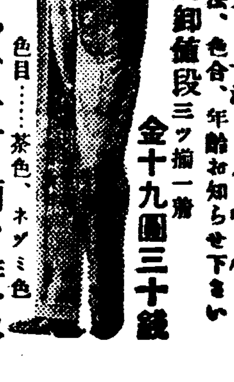
800號 パイル流線柄オーバー 生地は高級パイル厚生地柄と色は空想に畫く良品 柄は…斜線高尚柄色合…濃茶とネヅミ色 裏は…絹ゼツク 型は…兩前最新型 寸法…鯨尺…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ベンド無し 一着 金十八圓八十錢

850號 防寒衿毛付ベロアーオーバー 衿毛は化學の進歩が完成さしたる人造毛皮にてカワウソ以上の光澤と手當よく保管中虫の喰ふ心配なく防寒用として無二の絶好品なり 色合…黒色…濃紺色あり 朝鮮、滿洲及び寒國より大好評注文殺到す… 寸法…鯨尺…二尺八寸…二尺九寸 片前型一着 金十三圓三十錢 寸法…鯨尺…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兩前型 一着 金十四圓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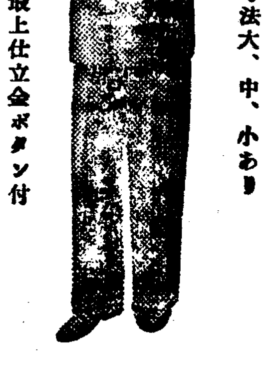
高級純毛紳士用トンビ發賣 生地は何れも厳選したる最良トンビ生地にして仕立最上の無飾り別誂向高級品なり 寸法…鯨尺…三尺三寸…三尺四寸…三尺五寸 三尺六寸迄同値 高級トンビ毛衿宣傳大特賣 本金二圓一

一二二〇號 高級純毛黑メルトントンビ 毛衿子付 一着 金十三圓五十錢
一二三〇號 紳士用純毛黑ラクダトンビ 毛衿子付 一着 金十七圓五十錢
一二四〇號 高級紳士用黑本ラクダトンビ 本毛衿付 一着 金廿二圓五十錢

◎責任附不合意品換返金自由
注文은…葉書로申込하면便宜上代金引換으로荷發送함
絶對保證…品質絶對保證保險地方小賣價格의半額以下
品換返金…不合意한때는品換返金自由絶對無損이업슴
送料負擔…는買主負擔荷造費는當店負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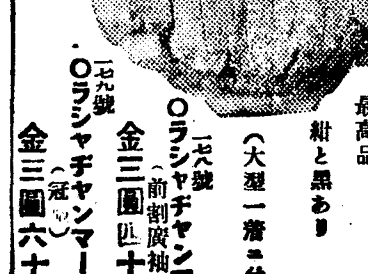


150號 縞柄スコッチ三ツ揃背廣服 多の厚生地の丈夫いかっちりしたる高價品 洋朱子裏付背廣服、紺、茶あり寸法…大型中型小型 御註文の時…年齢、体重、身長…御指定下さい 特別卸値段 三揃一着 金十二圓五十錢



200號 青年紳士用 スコッチ三ツ揃背廣服 服地は…多の高級厚地…柄は本年特有の流行柄 ネヅミ、茶、紺 仕立…別誂向高級仕立 特別卸値段 三揃一着 金十六圓五十錢

205號 ウーセット三ツ揃背廣服 色目…紺、茶、ネヅミ 服地…純毛高尚最新服地柄は本品固有の無地最新柄 仕立…別誂向最高仕立 寸法…大、中、小 御註文時寸法、色合、年齢お知らせ下さい 特別卸値段三ツ揃一着 金十九圓三十錢



210號 高級ゼットランド三ツ揃背廣服 色目…茶色、ネヅミ色 服地…別誂向の純毛品 柄合は本年大流行の無地誂向新柄 仕立…別誂向最高仕立 寸法…大、中、小、御註文の色合、寸法、年齢御知らせ下さい 三ツ揃背廣服一着 金二十一圓五十錢

245號 星印黒厚サージ詰襟服 服地…厳厚地本毛サージの最高級品の光澤ある強い服地 裏は…洋朱子特製裏付寸法大、中、小あり 詰襟服上下組 一着 金十一圓九十錢 仕立は…別誂向最上仕立金ボタン付

◉防寒ラシャヂャンマー 防寒に耐寒に体裁に最高品 紺と黑あり (大型一着ニ付)
一七八號 ○ラシャヂャンマー (前割廣袖) 金三圓四十錢
一七九號 ○ラシャヂャンマー (冠) 金三圓六十錢

實行の盛なること他に其比なし 品質が自然の宣傳なり

純毛起毛アンダー 色合…ネヅミ吹雪色一色 一打 金十九圓五十錢

自信ある品 強くて安くて暖かく起毛付体裁良き 豐富たる揃も……注文殺到…… ……追加注文又殺到……

コットンシャツ大發賣 品質本位の高級純毛…厳選したる原毛……優秀なる加工の妙味他に比なし強くて暖かくて着心地良い若きも老も和洋服下着に 一枚 金一圓六十錢

色合ラクダ新色 大特價卸値安い時に原 入組合せ 仕入てあるから安く賣れる
三〇九號 別製別厚地… 大判一打 金三十五圓二十錢 上下二枚一組 金五圓九十錢
三〇七號 特製極厚地… 大判一打 金二十九圓二十錢 上下二枚一組 金四圓九十錢
三〇五號 上製厚地… 並判一打 金二十三圓二十錢 上下二枚一組 金三圓九十錢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名古屋市東區千種通今池電停前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名古屋二八九番

茶故事 (八)

湖岩

產業化못한理由

孺茶는 高麗때 土產茶中에 가장 珍品이다.

이는 早春嫩葉의 劣로顯芽茶이엇든지 그香氣와 그甘味가 格別하엿스므로 王室의御用茶이엇다 한다.

南人이 孺茶를採取하야 精製해서 먼저高麗王室에 進上하면 王室에선 어쩌다가 간혹 寵臣에게나 寺院에게나 下賜하는例가 업는바 아니나 좀처럼求하지 못하는 珍品이다.

이러케 珍貴한孺茶를 어떤해에 李奎報(高麗明宗朝)에게 饋物로주엇든데 飮茶를愛好하는 風流詩人인 그는 欣悅함을 이기지못하야 오가(?)를 다드리엿다.

그러면 그饋贈은 누구나하면 老禪이라는 雲峰在住의 高僧이다 그는 孺茶를 보내는 詩를 請求하므로 李奎報는 이에應하야 孺茶의長篇古詩二首를 지여서 禪師에게 謝意를 表하고 또다시 三首를 지여 同好者와 서로 酬唱하엿다。

이 長篇古詩五首를 通하야 孺茶의 珍貴함을 가장 잘 窺知할수 잇다。그詩에依하면

一은 孺茶의採取가 아주困難한것이니 왜그러냐하면 茶田의面積이 아니오 山中의野生을 採取하기때문이다。深山幽谷에 冒險하고 드러가 치괴 머르며 풀을헤치고 採茶를 하는것이다。

南人不會怕虎豹 冒險衝深(?)... 二는 孺茶의製法이 困難한것이니 그는粒粒히 辛苦를 거쳐 採取함이 아니라 採取한後에도 多少의 製造를 하기 어렵다. 擇精成一餠。一餠千金 ...하기 容易치못하다。

三은 孺茶의包裝이 優美한것이니 그는 말할것도 업시貴重品으로 오색빗에는 箱子속에 너허 굿게장우고 그우에 紫色띠로 잘結束하엿다。

...孺茶는 ... 高價이므로 ... 孺茶로 소거품어 그네의胸中에 만히 떠러젓다。

五는 茶의 ... 栽培 ... 흔히 ... 니 그當時茶의所產地인 花溪에선 茶를 採取할때 官으로서 老少莫論하고 모두徵發하야 山속에 ... 가 떠며 머나먼 서울까지지 워간다。이것이 茶가아니라 그實은 百姓의膏血이다 萬民의 살을비여먹는 셈이다。

因論花溪採茶時。官督家丁無老稚。嶮嶺千重取手收。玉京萬里頭肩致。此是蒼生膏與肉。臠割萬人方得至。吾人이 여기 注 ...

그러므로 李奎報는 이를 ... 民의 ... 을 ... 李奎報가 孺茶詩에 이와가티 茶에關한 重要史實을 저것은 그것이 詩보담도 史的로서 일층더 貴重하다 하것다。

漢詩

重陽

押香 湖岡 考運

佳作之一六

壽星堂主人

一年佳節卽重陽
從古騷人引興長
落帽題糕俱好事
揷茱送客屬他鄕
繞山彤葉霜添色
滿地黃花雨浥香
未必登高傷落照
司勳終日對壺觴

印象에 남은 新人作品

—『濁流』와『轉落者』에 對하야— (四)

安含光

轉落者와農民의個性化

이作品을 읽어나감에잇서 무엇보다도 第一먼저 눈에띄우는것은 그地方의 地理的特殊性이 가장 躍如하게 나타나잇다는것이다。그는 繪畫性을 띤 그러한紹介的描寫에 잇서서보다

冒頭敍景에서만 感知할수잇는것이아니라、차라리 七龍이가 일하려나서는 새벽에 늑대가 그아플리(!)하고 지나갓다는것이라든가 낫(晝)에도 산돼지、오소리、여호等이 죄바를 헤맨다는事實等은、그것이 얼마나 幽深한山村이가를 感情的으로 늣기게하는 優秀한場面인지 알수업다。

둘재로 눈에띄우는것은 農民의 自然에對한 敏感力이다。그는詩人的인敏感이아니라、가장生活的인敏感이라는點에 우리의感性은 한갓 滿足함을늣긴다。

「그들은 그香餌한感情을가지고도、사철 天氣를보기에 게으르지안햇다。

밤이면、별데이한들、달무리 바람새를살피고、나제는、드노픈 하늘빗、구름새 살림의공기까지를 헤아려본다。심지어는 부엉이 가마까치의 우름소리와 개구리 죽모양에이르기까지 신경을 예민하게가지게되다。

이와가티 자귀네들의、생명선을 자연의위협과 不測不意의 災禍가운데두고잇든 그들은 순간이나마 그대자연에도 조심되여 창미를해보적은 한번도업고、오직 꿋업는두려움만으로 대하여내려왓슬뿐이다」

이와가튼 生活的인實感、觀察의鋭敏性等은 非但 自然에對한 農民의敏感性의 部分에잇서서만이아니라 이作品全體에관하야 잇슬뿐외라 그우에 文章의 洒脫한리듬과、描寫의 獨創性等을加味하야 꿋꿋내 沉慢의禍를주지안는다。

初頭 한개 平凡한素材에 불과라인 허ー마임에도不拘하고、꿋꿋내 沉慢의禍를주지안코 讀者를 잇끄러나가는것은 그文章이 가지는魅力보다도 좀더基本的으로는 作家의關心的인 世界觀에 終由되여잇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업다。

一定한 藝術作品은 作家의世界觀에서 產出되는바 個個의觀念이 形象的으로 展示될때에비로소 產出되는것이며 이러하야 作品의組織的根源은 形象그自體가아니며 文章이 이러니 저러니하는 技巧的形式은 더욱이아니며 作家의世界觀인것이다。이世界觀이야말로 形象의擇擇 그를完成하는特質等을 決定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가 가지는바 어떤作品에對한 藝術的共感(?)이란것은 決코 그作品의 世界觀과 分離해서는 생각할수업는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아프로도라가、『轉落者』가 가지는바 迫力은 決코 그

文章의優秀性에서 說明되여질 性質의것이아니라 그의良心的인世界觀——좀더 具體的으로는 農民의 個性化의優秀한 形象性가운데 展示되여잇다는것을 看破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困難도 늣기지안는다。

이作品은 健實히 農民의描寫에잇서서 單純化와 均一化에서 完全히 自由로울수잇는 勞養을어뎃다。

칠봉이、치백이、양전이、과수댁、강바위、이들은 모다 貧農이면서도 各異한 程度의 農村의 狹隘性을가지고 各自의 經濟的苦境에서 脫出하려고한다。

그리고 이作品의 平面的인스토리가 立體的인 印象을 傳達하고잇는 理由는 그脫出의 方途가 各其特殊한結末——이러한 深村에 잇서서의 生活的經驗이 업고서는 到底히 生覺조차할수업는 그러한特殊한 結末을 보혀줌에잇다。

農事에는 吾不問焉의態度로 蔘뿌리를지저 一獲千金을꿈꾸는지 벼이가 凍死를겨우免하야 臥病하고 債務辨濟의 計策으로 깽을노앗든 七龍이가 굶주린로 서방의 生命을잡엇고

惡德地主 姜座守에게 操를바처가면서까지 아貞양들때는 과수댁이 豫期와는딴판으로 定租를減하기는커녕 더苛酷히함에 憤하야 發憩하고 강바위가 살수업서 流浪의길을떠난다。

이러한事件의 起伏을通하야 作者는 農民의特殊的인性格 보담 大體的인 我利主義 좀더基本的으로는 私有財產에對한 愛慾이 그들의 生의權利를 얼마나 剝奪하고잇는가를 活靈的으로 보혀주고잇다。

雨雷으로말미아마 凶作을當하엿슬때 小作人一同이 定租減下의陳情을하엿다。그러나一律的으

南海沿岸住民의 民謠와俚諺 (五)

金思燁

다음 이섬民謠의 特異點을들면 (1)內陸地의女性은 比較的下層階級에 이르기까지 內訓女四書類의 嚴格한 儒敎敎育과 書翰文 歌辭等의 諺文敎育을 바더 相當한 敎養에 到達하엿스나 이섬 婦女들은 地理的關係로 儒敎의 敎訓보담 內陸地의 女性보담 더세찬野外勞役에 從事하게되여 諺文敎育조차 바들機會가 업서 大槪無識하며 貞操觀念도 薄弱하야 自由로운 男女間의 戀愛를 노래한것이만흐나 敍事民謠는 發達되지안코 表現에잇서서 보담더 露骨的이고 野生的이며 素朴하야 참되民謠의 입김을 이곳에 차질수잇고 儒敎에 感染되지안흔 그들의 生活의 一面을엿볼수잇다

例一
情다리 뭉다리 큰애지다리요내다리

例二
꼿아꼿아 곱은꼿아 노픈山에 픠지마라 허리안개 자주도라 반만픠다 올마진다。

(2) 家族制度의缺陷으로 發生되는家庭不和를노래한것、漁夫歌의 自己運命에 安堵하는 樂天的美點도 한特色이다。

例一
미영바레 姑婦야 무엇먹고 사느냐 참깨들깨 오도독。

例二
어허듸야 어허듸야 이놈의 八字보소 父母妻子 生離別로 이곳저곳 내버리고

例三
실찌실찌 훌러다못치라 저기시나보소 것눈은감아도 속눈은떼네 文來야 뺑뺑 잘도라라 남의집貴童子밥이술맛는다。

例一
오십리打鈴목 개가지네 개가지네 건너ー모시랑풀 개가지네 개가지네 오십리길 나니나난다 지화자좋네。

例二、동가打鈴목
어ー허둥 어ー허둥 동가동가 내사랑 南海邑內 큰아기 南海邑內 큰애기 비빔이장사로나간다。 비빔이작작모라이고 개아리갱조 山菜나물 참지룸방울이제格이로구나。 에야 에야 에야 에야 어ー허둥 어허둥。

죽을것을 알면서도 어쩌지도 못하니 가는구나 어허듸야 우리生業 이것이니 이것저것 生覺할게 天生職業 할수잇나 버려먹는 풍시고나 어허듸여 당가아라 도당아라 배띄여라。

(3) 律調에對하야는 朝鮮歌謠의 基本形인 四四調와 三三四의 아리랑調가 第一만흐나 變形調도 相當히만흐니 島民의 旺盛한 歌舞慾과 굴네버슨 奔馬와가튼 自然的野性은 往往히 定型律에 拘束을 밧지안는듯하다。그리고 노래에는 그에 一定한 曲調가잇서 島民은 이것을모든 목어르는다。그래서 이노래는무슨목으로 부르고 저노래는무슨목으로 부르는니한다。다음 그목을들면

A、오십리打鈴목(悠長하야 어느 서슴 에手舞足蹈할지모르는 기뿜을낫타낸曲調)

B、달거리목(悠長하고 哀傷한 曲調)

C、배꼿목(哀願하듯한 메ー소한曲調)

D、오독데이목(남을 誘惑하는듯한 曲調)

E、동가打鈴목(明朗하고 快活한曲調)

F、상사목(主로 移秧時에 부르는曲이니 悠長하면서도 우렁차다)

G、맹아打鈴(愉快한舞踊曲)

新刊紹介

◇婦人と家庭 ラッセルから パートランド、林原耕三 譯 發行所 岡山市山崎町 四六 林原耕三 定價二十錢

◇ひとのみち婦人 十二月號 發行所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永和三九三 ひとのみち婦人出版社 定價二十錢

◇新影 十二月號 發行所 東京市杉並區和田本町一〇八二 新影會本部 定價二十錢

◇靈光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天西洞大衆西方敎會 靈光社 振替京城天八四八番 定價一部五錢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短篇**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 써여쓸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二篇 卅圓

◇**戲曲**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 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詩調** 長短은 別로制限업고 一人數篇應募無效
賞=一等一篇 五圓、二等若干篇 各三圓

◇**時調**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民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童話**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써여쓸것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童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野談** 四百字原稿紙 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字句를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卅圓、二等一篇 十五圓

◇**實傳說話** 그內容은 오직 소에關한것으로서 制限하되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코 一切返還치안함 보내실때는 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할것)

朝鮮日報社學藝部

讀者社交室

▲求職 生은二十五歲青年이온데 中學을 卒業하고 私立學校敎員生活을좀하다가 木手見習、四年間하고 某工科學校建築科二年中途退學하온者인데 此方面에求職코자하오니 有意하시분은 諸者室이나 卽接本人에게로 通知하시압 京城鍾路五丁目四〇九番地 金炳植方 金忠一

▲本報諸讀者의게 左記物品을 事情에依하야 販賣로讓渡코저하오니 社交室로나 或은直接問議하시면 價格을 通知하겟나이다 一、ラヂオ部分品 메로듸五球式 球番號는 三五、三五、四七、二四二B

▲讀者社交室을 通하여 滿天下 諸先生님께 뭇습니다 小生은 藥業에多大한 趣味를둔 十九歲의少年이온대 信明深氏께서 日本語로 譯한 コトルツーブンゲン이란册을 大阪開盛館에서出版하엿다는바 住所가 未知하여 購買치못하여 或아시는분이 게시오면 直接本人으로나 社交室로서 알려주시면 感謝를 마지안켓나이다 新義州府彌勒洞 秋岩堂醫院內로 問議하시요

▲全北南原邑雙橋里 梁錦杜
▲東京、大阪等地의 額緣紙饋卸賣商을數處下敎하야주시옵기바랍니다 市內地藏庵讀者

★曆★
十二月十四日(月) 陰庚子十一月大(初一日) 庚午·土·心 破
▲冬至二十二日(舊初九日)

조선어표준말모음 (35)

둘재、비슷한말(近似語)

숨기 — 息氣
숨기척 — 同微音
숨지다 — 殞命
숨넘어가다 — 同刹那的
숨통 — 氣管
숨구멍 — 呼吸孔
수북하다 — 盛多
소복하다 — 同小
숫가라 — 匙
갓자 — 同高級品
숫지다 — 淳厚
숫접다 — 淳質
숫되다 — 素朴
푸지다 — 豐多
수선거리다 — 騷
숭얼거리다 — 世論
수선스럽다 — 混雜
수수하다 — 無修飾
수련하다 — 順柔
숨숨하다 — 稍近滿足
숭숭 — 疎孔
숭얼숭얼 — 同疎
송송소름 — 以下各小

수줍다 — 羞
어줍다 — 訥
수월하다 — 無難
수월스럽다 — 無難然
쉬 — 易、不遠
쉬사리 — 容易
쉬파리 — 青蒼蠅
왕파리 — 大蠅
슬근거리다 — 輕擦
살근거리다 — 同小
슬근슬근 — 輕擦貌
살근살근 — 同 小
슬기롭다 — 聰明
슬금하다 — 內明
슬며시 — 默然
슬그미 — 隱密
슬그머니 — 同歎
살며시 — 以下各小
살그미
살그머니
슬슬 — 輕擦貌
살살 — 同 小
시골나기 — 鄕出生人
시골뜨기 — 鄕人未開者
시골고라리 — 鄕人而愚者

촌뜨기 — 村間未開者
시금떨떨하다 — 酸澁
시금털털하다 — 同重
시금하다 — 微酸
시큼하다 — 同重
시근하다 — 同筋肉感
시큰하다 — 同 重
시척지근하다 — 酸敗味
새금하다 — 以下各小
새콤하다
새근하다
새큼하다
새척지근하다
신선로 — 神仙爐
열구자 — 同料理
시들시들 — 萎委貌
시득시득 — 同 甚
시들부들 — 以下各無力
시득부득
새들새들 — 以下各小
새득새득
수들수들 — 枯萎貌
수득수득 — 同 甚
소들소들 — 以下各小
소득소득
시틋하다 — 不滿
새틋하다 — 同小

시들히여기다 — 不置重
시들히보다 — 不重視
실그러지다 — 斜歪(動)
샐그러지다 — 同小
실긋하다 — 斜歪(形)
실룩하다 — 同軟
실쭉하다 — 同長形
샐긋하다 — 以下各小
샐룩하다
샐쭉하다
실긋거리다 — 繼續斜歪
실룩거리다 — 同軟
실쭉거리다 — 同長形
샐긋거리다 — 以下各小
샐룩거리다
샐쭉거리다
실긋실긋 — 斜歪貌
실룩실룩 — 同軟
실쭉실쭉 — 同長形
샐긋샐긋 — 以下各小
샐룩샐룩
샐쭉샐쭉
실긋샐긋 — 以下各混雜
실룩샐룩
실쭉샐쭉
실떡실떡 — 雜談貌
실실 — 戲笑貌
실밥 — 綿屑
실보무라지 — 同雜屑
실속 — 實利
실쌈 — 自己實利
실큼하다 — 厭厭

실쭉하다 — 同弛
샐큼하다
샐쭉하다 — 以下各小
실뭇 — 卷絲
실몽댕이 — 絲塊
실패 — 糸牌
실감개 — 糸卷
실하다 — 實
튼튼하다 — 堅實
실팍하다 — 壯健
탕탕하다 — 有强味
실없은말 — 無用言
농담 — 戲談
실룽거리다 — 狂語
시부렁거리다 — 同傷人
시룽시룽 — 狂語貌
시부렁시부렁 — 同傷人
심술구러기 — 頑悖者
심술패기 — 頑悖兒
심술통이 — 頑悖嫉妬者
심술피우다 — 心術表現
심술부리다 — 心術行使
심심풀이 — 破寂
심심소일 — 同消遣的
심악하다 — 苛酷
상악하다 — 同小
심악스럽다 — 苛酷然
상악스럽다 — 同 小
이심스럽다 — 人心難測
야심스럽다 — 同 小
싱겁다 — 味淡

싱싱하다 — 同弱
상상하다 — 同小
싱긋싱긋 — 微笑貌
싱글싱글 — 同 軟
벙긋벙긋 — 以下各愉快
벙글벙글
싱글벙글 — 同 各條
생긋생긋 — 以下各小
생글생글
방긋방긋
방글방글
생글생글
싱긋거리다 — 微笑
싱글거리다 — 同軟
생긋거리다 — 以下各小
생글거리다
싱숭생숭 — 心神不定貌
시룽새룽 — 同 小
시적거리다 — 緩行不進
흘근거리다 — 同懶弛
흘쩍거리다 — 同故意延拖
흘쭉거리다 — 同 重
시적시적 — 緩行不進貌
흘근흘근 — 同 懶弛
흘쩍흘쩍 — 同故意延拖
흘쭉흘쭉 — 同 重
시큰둥하다 — 驕豪放
시룽머리러지다 — 同過度
시룽스럽다 — 同無禮
시룻하다 — 追憶厭苦
진절머리나다 — 同 甚
시퍼렇다 — 深青

새파랗다 — 同小
시푸르죽죽하다 — 青黑
시푸르뎅뎅하다 — 同弱
짝 — 雙
쪽 — 片
짝채우다 — 充偶
짝짓다 — 作偶
짠지패 — 雜歌隊
날탕패 — 同西道雜歌
짜들름짜들름 — 小小斷續貌
찌들름찌들름 — 同 大
졸렁졸렁 — 同 促
짤막하다 — 稍短(線的)
짜름하다 — 同 (形的)
쩍벌어지다 — 着面開張
떡벌어지다 — 合口開放
짝발아지다 — 以下各小
딱발아지다
쩍쩍 — 動舌音
쩝쩝 — 動唇舌音
짝짝 — 以下各小
짭짭
쩍쩍거리다 — 動舌
쩝쩝거리다 — 動唇舌
짝짝거리다 — 以下各小
짭짭거리다
쪽 — 方向指示
편 — 方面分定
쪽쪽 — 吮音

쫑쫑 — 同小
쭝긋거리다 — 耳口尖動
쫑긋거리다 — 同 小
쭝긋쭝긋 — 耳口尖動貌
쫑긋쫑긋 — 同 小
쭈크리다 — 屈身
쭈크러뜨리다 — 同甚
쪼크리다 — 以下各小
쪼크러뜨리다
쫌 — 程度
만큼 — 限界
찜부럭내다 — 不快言動
찜부럭부리다 — 同 甚
찝찝하다 — 不言貌
찡찡하다 — 難言貌
찡긋거리다 — 頻蹙顔
찌긋거리다 — 頻蹙眉
찡긋찡긋 — 蹙顔貌
찌긋찌긋 — 蹙眉貌
찡기다 — 衣皮斜蹙(自動)
찡그리다 — 蹙(他動)
째푸리다 — 同 重
찢어지다 — 破裂
째어지다 — 分裂
작다 — 小(大의對)
적다 — 少(多의對)
작대기 — 撑棒
작사리 — 數個交結杖
작살 — 刺魚分枝槍
자고깨면 — 睡覺後(每-覺本位)

자고새면 — 同(日明本位)
자그마하다 — 稍小
저그마하다 — 稍少
조그마하다 — 各同小
작은사랑 — 子弟居室
아래사랑 — 下便舍廊
자란자란 — 水滿貌
차란차란 — 同 盛
차랑차랑 — 同將溢貌
찰랑찰랑 — 同 强
처렁처렁 — 以下各大
철렁철렁
작은집 — 次子家、妾家
적은집
잔디 — 莎草
떼 — 莎土
잔말 — 冗言
잔사설 — 繁多冗言
잔소리 — 厭聽冗言
잔소릿군 — 恒例冗言者
잔말쟁이 — 同 可厭者
잔망스럽다 — 虛妄成熟
잔작하다 — 成熟遲弱
잔자누룩하다 — 鎭定貌
잔잔하다 — 靜穩貌
질록질록 — 長物凹凸貌
질룩질룩 — 同 强
잘록잘록 — 同 疎
짤룩짤룩 — 同 深刻
잘룩잘룩 — 同 强

질룩질룩 — 同 疎
잘록하다 — 長物中凸
잘룩하다 — 同 强
질록하다 — 同 疎
질룩하다 — 以下各深刻
짤룩하다
잘리다 — 被紋
졸리다 — 同小
자르다 — 紋
잘라매다 — 紋結
조르다 — 以下各小
졸라매다
잡가 — 雜歌
잡소리 — 雜常語
잡도리하다 — 團束
잡치다 — 緊促
자빠지다 — 仰沛
나자빠지다 — 同激甚
나가자빠지다 — 同散步離
잡수다 — 먹다의尊
자시다 — 먹다의稍尊
장가처 — 行禮妻
본대비 — 元在妻
장거리 — 市場街路
장판 — 市場地區
장국밥 — 肉湯飯
국밥 — 入飯
국말이 — 同臨時混飯
장금 — 市價

장시세 — 市價騰落勢
장나무 — 木竿
장대 — 竹竿
장다리 — 薹(무、배추)
종 — 同(파、마늘)
장사 — 商行爲
장수 — 商人
잦다 — 後傾
잣바듬하다 — 同外延
젓다 — 以下各大
젓버듬하다
잦히다 — 後傾、後反
젖히다 — 同 大
잦아지다 — 凋落
잦아들다 — 漸凋
자지레하다 — 細瑣貌
자질구레하다 — 雜細貌
자차분하다 — 細弱貌
자오록하다 — 濛霧貌
자욱하다 — 煙霧貌
재깔재깔 — 喧噪貌
재잘재잘 — 同 細
재바르다 — 敏速
재다 — 敏
적바림하다 — 記簿
적다 — 記
전골 — 煎骨
벙거지골 — 戰笠骨

전국 — 純液
진국 — 純眞人
전쌈 — 不稀濃物
진쌈 — 不混純物
진짜 — 非假眞品
저네 — 저네들의略
저들 — 저이들의略
저따위 — 如彼類
저까짓 — 僅彼程度
절꺼 — 密觸貌
절꺽 — 同 强
잘까 — 以下各小
짤까
절꺽거리다 — 頻觸密觸
철꺽거리다 — 同 强
잘까거리다 — 以下各小
짤까거리다
절꺽절꺽 — 反復密觸貌
철꺽철꺽 — 同 强
잘까잘까 — 以下各小
짤까짤까
절룩거리다 — 跛行
쩔룩거리다 — 同 强
절름거리다 — 同 輕
저축거리다 — 同無力
잘룩거리다 — 以下各小
짤룩거리다
잘름거리다
자축거리다
절룩발이 — 跛者
절름발이 — 同 輕

清淨과 美容의 二重効果

구라부 구렌징用크림은 第一簡便한 洗顔用優秀크림입니다

이것을쓰시면은 살결의 때와 티가 살결表面뿐만이 아니라 皮膚의最深部에이르기까지 깨끗하게씨서내는 洗顔用크림으로 뛰여나는 淸掃効果가잇습니다 또 그뿐아니라 榮養料의 配合으로生地에서 어여뿌게하는 美容効果도兼한 優秀한크림입니다

이러케하야써주십시오

구라부구렌징用크림을얼골에서 목까지손으로가볍게문질느고 暫時後타올이나까ー제또는脫脂綿으로닥거내는것뿐으로살결의表面은勿論皮膚의深部까지淸淨하게합니다 特히荒性脂肪性의분에게도効果가잇습니다

華美훌늉한 이特長

●化粧前에쓰시면은 더운물이나비누로洗顔하신것以上으로 生地에서充分히 整齊하고 化粧이다르리만큼 됩니다

●白粉먹음에는 異常하게 속하고 개끗하게됩니다

●就寢前에는 반드시쓰시요 잠자는동안에 皮膚를아름답게 만듭니다

●入浴前에 쓰시면은 湯氣로皮膚의 氣孔이열리고 汚物이나 때가 더잘빠집니다

●旅行時에外出時에 隨時簡單하게 洗顔과 化粧을直時할수잇습니다

살결거친대
化粧下에
맛사ー지에
살결만짐에
面刀後에

クラブ クレンジング用 クリーム (洗顔用)
구라부 구렌징用 크림

六十セン

銀幕夜話

오베론의戀人推薦

휘ー나레에 요지多少출연한 에롤·후린과 올리버·드·하비랜드 夫妻의 "나아가자騎兵隊"과 함께 또다시 姉妹에 戀愛一事件이생겻다 이映畵는 英國詩人테니슨의 長詩를 映畵化시킨것이므로 될수잇는대로 英國俳優를 登用하기로되여서 에롤·푸린의 騎兵의 部下役에 對하야 配役係가 머리를 알코 잇던次에 마ー르·오베론이 일부러 配役係에 出頭하야 新스타ー 「따빗도·니이빈」을 推薦하얏다 ……

사랑보다도强하다

……이번이라는 사나히는 오베론이 일부러아메리카까지 따려왓다는 熱熱한 戀人임을 알게되엿다그러치안허도 푸린과 愛戀하리라! 다미다와의 달콤한場面을 보고 公然히 설회를내고잇던 同社의 스타디오면들 또다시 愛人기리 여러사람아페서 情다히 지나는 것을 엇더케 보고잇단 말이나 하고 憤慨하얏스나 그때는벌서 늦저서 成服後였던것이다

「아ー사렷다!사렷다 저는 지금은 아모러치도안케 아조튼튼하게되엿서요!」하고 어느날午後 ……

不運의시몬

……

라디오

十四日 (月曜)

◇午後六時 童話 黃金날개 毛麟允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七時三〇分 講演 자멘호프의誕辰을當하야 魚 徹
◇同八時 管絃樂伴奏獨奏(解說附) ー모리스·호ー르로부터中繼ー 一、라ー르고……헨델作曲 二、봄노래……멘델스존作曲 三、안단테바이올린協奏曲中에서……同 四、아베마리아……구노ー作曲 五、저녁별……그너作曲 六、行進曲歌劇 탄호이저中에서……同
◇同八時三〇分 野談 『그女子의自殺』 申鼎言
◇同九時 (平)孔明歌外 一、懋心歌 二、역금 三、자진난봉가 四、긴난봉가 五、孔明歌 吳明姬 金錦心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鳥)物語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〇分 (東)義士의夕

十五日 (火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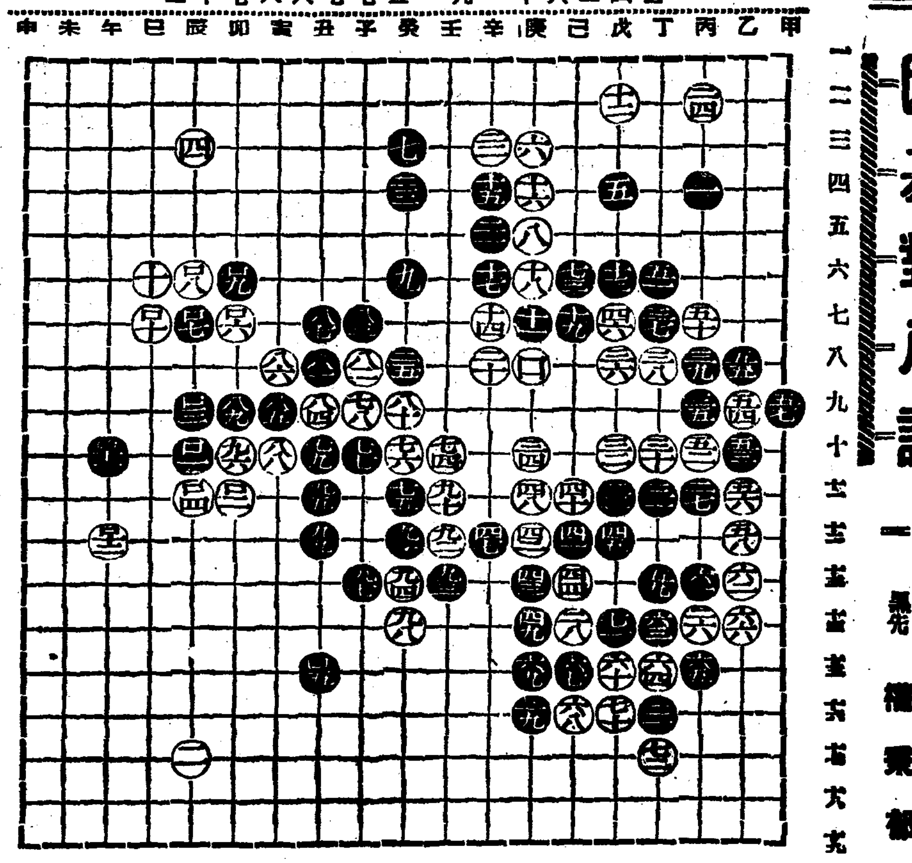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晩秋…마넨테作曲 二、플로렌스의힌百合꽃…무니에르作曲 三、롬바르듸아의小夜曲… 四、伊太利民謠세가지 가、산타·루치아 나、마리아마리 다、라·팔로마 高橋맨돌린·앙상블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上級學校入學準備 師範附屬 張和順
◇同六時 童謠와唱歌 (平) 一、齊唱 빗방울 二、獨唱 가、…… 正進女子普通學校生 가욧밭(桂) 나、달그림자(桂) 三、齊唱 조코레ー트 四、獨唱 영감영감아보소(金) 五、齊唱 잠자는발아 六、獨唱 누나와동생(朴) 七、齊唱 나는야알고말고 八、獨唱 산타루치아(桂) 九、齊唱 영감님 十 齊唱 꼬맛
獨唱 桂愛恩 〃 金成實 〃 朴孝德 伴奏 宋愛誠
◇同六時廿五分 兒童新聞
◇同六時卅分 經濟解說 金德文
◇同七時卅分 趣味講演 사양이야기 晉專講師 咸秉業
◇同八時 歌詞 一、白鷗詞 二、길군악 金錦桃 崔竹香
◇同八時卅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 아서라世上事 金柳鶯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流行歌 一、放浪의길손 二、달밤을안고 三、處女時節 四、어머님품으로 五、江南七百里 歌手 池龍九 伴奏 DK管絃團 車鎭

圍碁對局譜 —7—

本社主催

白 梁檀文
黑先 權寧都

[illegible]



觀戰者談 白이 黑을 斷絶觀念하다가 俱是放姿한으로 中央自陣에 疑點이 未解라 庚의八保守點을 一着하여시나 아즉도 釋慮난 못된다 黑도亦是 後陣未遂處가 잇시므로 成果如何난 逐次一覽할지어다

歌劇 沈淸傳大公演 (四幕八場)

時日 十五日부터三日間
場所 市內東洋劇場에서

指揮	李東白
脚色	宋萬甲
演出	金昌龍
	金容承
	丁貞烈

—配役—

沈奉事	丁貞烈
郭氏夫人	曹鷄鳥
귀덕이네	林小香
洞里사람	李東白

沈淸	金演洙
同	朴綠珠
僧	趙相鮮
도사공	丁南希
船人	吳太石
同	韓成俊
同	金世俊
同	徐鴻九
同	趙鎭榮
同	曹南承
二妃	金楚玉
오서자	金蘭珠
龍王	宋允甲
시녀	丁萬愛
同	成壽香
시녀	金任壽
同	朴貞和
同	李錦草
同	韓山月
辛奉事	曹鷄鳥
도토夫人	金昌龍
黃奉事	

入場料 階上七十錢 階下五十錢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ライオン歯磨 アベツク サービス 當籤發表

라이온

感謝

임이全鮮新聞紙上에 一齊히發表하얏든 아베크·써ー비스附의 出은、그方法의斬新도趣味的이엿든일이 從前의人氣를떨치여、全혀 驚異的成績을거둘수잇게되엿슴은 實로 感激感謝에넘치는일이엿슴니다。抽籤은지난十七日嚴正하게執行하온바、左記A賞을버롯하야全部그結果를어더玆에그뜻을披露하옵는同時에、各位의支援同情을深謝하오며따라서今後에도 一層愛護를賜하야주시기를懇願하는바이옵니다

昭和十一年十二月 ライオン歯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A賞合計壹千名様

A賞 (イ) ポータブル蓄音機と晴雨兼用洋傘 貳百名様 (敬稱略)

[illegible]

A賞 (ロ) 寫眞機とハンドバッグ 貳百名様 (敬稱略)

[illegible]

A賞 (ハ) 寶石入指輪とクローム側腕時計 貳百名様 (敬稱略)

[illegible]

A賞 (ニ) 電氣機關車とお人形 貳百名様 (敬稱略)

[illegible]

A賞 (ホ) 美術置時計と姫鏡臺 貳百名様 (敬稱略)

[illegible]

B賞 イ萬年筆とシャープ・ペンシル ロ剃刀セット(安全剃刀と附屬品) 貳千名様
C賞 アルバムと紙切ナイフ 五千名様
D賞 ライオン徳用石鹼とタオル 壹萬名様

B賞以下D賞까지壹萬七千名의 氏名은 紙面關係로 생략하였읍니다。賞品은 모다 郵送하여드릴터이오니 「當籤되신분」은 잠시기다려주시옵소서。발송은 目下발送中이오니 곳 도착될것이외다

214—11.12

南旨에서馬山까지 洛江堀鑿具體化?
關係沿岸八郡一府住民蹶起
年內로代表會開催

【釜山】세상이다아는바 락동강(洛東江)은 경상남북도에뻐처잇서서 그長流가 칠백리에뻐친 장강인만큼 류역에홍수의 피해가 빈번하야 세로뎌여잇스므로 종래의 하천공사(河川工事)와수리조합(水利組合)가튼 시설로서는 도저히비할수업슴을 각록한관계연안인 창녕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김해 량산 동래 마산(昌寧、宜寧、咸安、昌原、密陽、金海、梁山、東萊、馬山)등지팔군일부의 편민유지들사이에 얼마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강구중이라함은 세간에서 주지하는바어니와 다시금 듯는바에의하면 금년내로는 밀양역전(密陽驛前)에서 관계연안 각부군대표자대회를 열고 남지 마산간의 락동강굴착문제에 대한 구체방침을 결정할것이라고한다。

스마일링大會 盛況裡에終了

【定州】정주읍내정원유치원(定遠幼稚園)은 본사방사장(方社長)의경영으로 일반유지의 열렬한 협력까지잇서서 금번제一차회합에 백여명의 원아가 뫼혀놓고잇다 그런데 동원의운동기구가 범위넓고 부족한것을 유감으로생각한 동원자모회(慈母會)에서는운동긔구매입비용을 엇기위하여 지난십이일오후칠시정상극장에서 스마일링대회를 개최하엿는데 청중이 팔백여명에달하여 공전의 성황을 일우엇는데 당야에 수입된금일백오십여원은 운동구매입비로사용하게되엿다한다

平南中心의赤色事件 取調未了尙五件
關係人員이百餘名에達한바
—畢竟은留置場過歲—

【平壤】계속하는 농촌중심의 적화공작에 대하여는 수개월전부터 평남도경찰부고등과에서 관내 십륙개경찰서를 동원시켜가지고 비밀결사진발에 대활동을 계속하고잇서서 벌서 진남포(鎭南浦) 안주(安州) 덕천(德川) 순천(順川) 평양(平壤) 강서(江西) 평원(平原) 룡강(龍岡) 개천(价川)등 각경찰서에서 십수건의 결사체를검거송국하엿고 방금 검거취조중에잇는 사건만도 안주(安州)를 중심으로한 조선○○○운동의 대검거사건을 필두로 평원(平原)의 적색농민조합(赤色農組) 덕천(德川)천도교도불온계회사건 룡강(龍岡) 강서(江西) 평양(平壤)의 군관학교졸업생(軍官學校卒業生)중심의 ○○사건 순천(順川)의 불온사건등이 잇서서 년내로서는 도저히 취조가 끗나지안허 명년에 넘어가기로되여 백여명관계자들은 류치장에서 과세하게되엿다한다。

龍安森林鐵道用地買收 價格協定이困難

【圖們】룡안삼림철도(龍安森林鐵道)(龍井~安圖縣間)부설용지매수가격 단까에대하야 철도국측과 철도연선 지주측과 수차절충하엿스나 타협점을 발견못하엿다한다 그리하야 룡정가공서(龍井街公署)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일본인민회(日本人民會)상공회(商工會)등사단체에서 최근일선중역시철도국에서 룡정부근동산(東山)일대의 토지평당칠전식으로 평가를 작정하는반면지주측에서 최저평당 삼십전이아니면 불수업다고 강경히주장하는바 장래이러한협정을 발견하기까지는 아직상당한 시일을허비하리라는바 일반의 평판에의하면 철도국측의 부당한평가에대하야 비란이 만라고한다。 철도국토지매수계원도일반지주의태도와 시가로 보아도저히매수할수업스므로 산정본사에 출장하야 절충중이라는바 그해결이주목된다고한다

◇鴨江의完全結氷

【新義州】조선과만주의국경을삼는 일위대수(一葦帶水)、압록강은 인제 완전히 결빙되엿다 도보로 자전거로 빠치 한동리와가티 조선사람과 만주사람이 련락부절하게래왕하는것이 사이조케보인다

◇…사진 십이일북하동(北下洞)부근의압록강

五十萬圓資本으로 酒造會社設立

【平壤】평남도내의 소주양조업자(燒酎釀造業者)들은 그동안수차의 회합협의결과로 소규모의 업태를버리고 대규모의 양조긔관을 조직하게되엿다

평양(平壤) 순천(順川) 성천(成川) 중화(中和) 안주(安州) 등지의 대표업자여덜명의 합자로오십만원을 출자하여 대동주조주식회사(大同酒造株式會社)를 창립하고 매년일만일천석의 생산을하기로되엿다

공장은 부내선교리(船橋里)에 설치하고 명년일월일일부터 생산을 개시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가내소규모의 생산에서대규모의 긔계생산으로 일획기적진보를 보게되엿다한다

白米窃盜犯逮捕

【汶山】파주군(坡州郡)하에는년말을 압두고 절도가 빈번하야 매우 인심이 불안중에 잇서 파주서에서는 용택(涌澤)서장이하 서원일동이 범인체포에노력중이든바 지난십일오후윤복전(尹、福田)형사가 절도한명을 체포하야방금 엄중히 취조중이라는대 범죄내용은 파주군임진면 선유리(坡州郡臨津面仙遊里) 여러집의 백미(白米)가 업서저서 동서에고발이 왕장으로 서에서는 범인을수사한결과 범인은그곳에사는최영묵(崔榮默)(二〇)로 판명되어곳 검거하야 방금 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그소년은 절도범으로 개성소년형무소에서 징역일년을 기한을 마치고 지난시월십칠일에 출옥한 자로서 동리에서 그와가티 백미를 절취하야 판매한후 주색에소비하얏다고한다

社會各機關에 二千圓을喜捨
元嵐洙氏美擧

【江南】수년전부터 경성리태원정(京城梨泰院町)에 터를잡고이래무수한 영재(英才)를 길러오는 사립조양보통학교(朝陽普通學校)를 꾸준히경영하는한편 기타공익사업에도 막대한 공헌이 잇서오는 경성원윤수(元嵐洙)씨는 오래전부터 광주군중대면이리(廣州郡中垈面二里)에 [illegible]을 경영케됨으로부터 자연그지방일대의 각긔편시설등에 불비한것이만흠을보고 항상유감으로생각하여오든바 이번에현금 이천원을 희사하여 다음과가티 각긔관에 적의분배하엿다는바 요사이 그지방일대에는 씨를칭송하는소리가 자자하다고 한다

一、廣州郡內災民同情 一百圓也
二、松坡公普校 八百圓也
三、松坡[illegible]小學校 二百五十圓也
四、松坡水防團 五百五十圓也
五、大旺[illegible] 一百圓也
六、廣州郡武德會 一百圓也
計 二千圓也

牛車父殺害共犯 其父檢事局送致

【平壤】중화가도(中和街道)에우차부를 유인하여 참살한후 우차와 축우를 강탈한 본적을 강동군 만달면 승호리(江東郡晩達面勝湖里)에 두고 현재 평양부내 신리(新里)에 거주하고 잇는 김은일(金殷日)의 삼남 김효순(金孝順)은 봉천(奉天)방면에 다라난채로 검거되지안엇스나 그공범인 그아비김은일은 십사일 강도상해치사죄(强盜致死罪)로 평양지방법원에 송국햇다

每區一年半을豫定 城津邑區劃整理
昭和十四年까지四區를完了
十日附施行規定告示

【城津】금번사월 이십일부로써 성진읍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여 제일구내지 제사구의구획정리구역중 제사구를제한 나머지 삼구에대하야 등외도로신설에관한 성진군수의고시도 이미발표되고 다음시월십오일부로써 총독부로부터 성진읍에 전기사개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는 소화십사년말까지 이것을 완료하라는 명령이 발표되엿슴으로 이래 읍당국에서는 본사업의집행방법에 관하야 저반준비에분망하든중 십이월 십일부로써우선 별항제이구(蓮洞)토지구획정리시행규정을 고시하고 아울러 해구획정리계획을 발표하엿다고한다、읍당국에서는 계속하야 제일구급 제삼구에 대한 동양수속을 완료하고 다시명년륙월경까지 제사구에등외도로신설고시를 기다려 역시동양사업집행의 수속을 개시할작정이라고한다 이리하야 매구약일개년반의기간을 목표로서 구획정리를완료하고 수명(受命)기한인소화십사년말까지 예긔 과정을 완료할터이라고한다

事業概要

一、地區總面積 六四七、九二七方米(一九六、九九八坪)
內公共用地에減步되는面積 五九、四九八坪(約三〇%)
二、事業費 一六六、〇〇〇圓
三、事業內容
1、道路幅員二十米 十二米 八米 六米의道路를主로서 聯絡道路에配하야 一部地形의急[illegible]個所에四米道路를設置함
2、側溝道路의 敷地內에排水量을考慮하야 假側溝를設함
3、排水 排水系統을定하고暗渠에依하야 山手垈地區內의集水를收하야排水함
4、宅地整正形의地劃을 原則으로 換地等에依하야整地를行함
5、補償支障에依하야 除去減失할家屋其他物件에對하야補償함
6、工事期間 昭和十二年四月부터同十三年十月까지

中國人으로變服 阿片을大量密輸
平北移動班이逮捕

【新義州】지난 십일일 오후열한시이십분 신의주역착 북행렬차가정주(定州)부근을 통과할때 평북경찰부 이동반형사가 삼등객차안에서 거동이괴상한 중국인두명을 발견하야 어데로가느냐고 질문한결과 본국으로도라간다고함으로 별로 이상히 생각지안코 가지고가든보찜에손을 대이엿든바 전긔 중국인두명은 놀내여 「보찜」을 보지못하게 함으로 괴상히여여 강제로 보찜을 검사하엿든바 집가운데서 아편(阿片)흑관(시가약칠천원)이 나타남으로 취조한결과 밀수출하려든것이 발각되여 신의주에 하차식이여가지고 취조한결과 산동성(山東省)길림성(吉林省)출생 장일성(張一成)과 김치명(金致明)으로 김은조선사람인것이 판명되엿다한다

盈德各海岸에 鰯魚大豊獲

【盈德】경북영덕군에는 근간래 어업이 부진되여 당업자들은물론이오 각계에미치는 영향이막대하든바 수십여일전부터 군내각해안에는 멸치(鰯魚)가 잡히기 시작하야 수십년내 처음보는대풍획이라는바 가격은 매두풀질에따라 삼십전 내지칠전까지잇다고한다

龍岩浦租檢場問題 增設로爲先段落

【龍岩浦】평북룡천군룡암포에서는 미곡검사원의무리로 생산자급 정미업자는물론 시민전반에 다대한타격을 밧는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룡천군수 장문규(張文奎)씨는 최선의노력을다하야 검사원또는 도당국에교섭활동한결과 조집합검사장소(租集合檢査場所)로 일개소를증설하여 과거삼개월동안이나 복잡중이든문제가 해결되엿다한다

學校設立基金으로 三千圓土地喜捨
甕津金子求女史美擧

【甕津】옹진군 북면 농현리김자구(金子求)여사는 무산아동들을위하야 학교를 건설하라고 삼천원가치의 토지를내여마전에 동리에자진히사하엿다 여사는 소년과수로 어린딸 셋형제를데리고 농촌에서 열심히근농사을 지어가면서 푼푼히모흔피눈물석긴돈 삼천원의 가치되는 토지를 전긔와가티 희사하엿다는바 이소식을듯고 기자는김자구여사를 방문하니 아래와가티 이야기한다

나는 일직이혼자되여 딸사형제을 길러 출가식히노라니 벌서 오십이지낫습니다 우리 동리는 학교가업서서 어린아이들이 십리나되는곳에 통학하기가 어렵고또는 아이들도 보통학교에 입학할수잇는아이들로 지원자들을 수용하지못하야 반수이상이나 문맹이되여 버립니다 내마음에도 넘어답답하야 우리동리에학원이라도 세웟스면하고 얼마간내엿습니다

(사진은 김녀사)

洞里有志憤起 書堂期成會組織

김자구여사가 교육사업에쓰라고 삼천원의토지를 희사하엿다는소문이나자 동리유지들은물론 청년들까지도 여자로교육사업을 위하야 삼천원식 희사하는데 그저잇슬수업다고 동회를모아 서당기성회를조직하고 임원을선정하고 임원과 동리유지들이 오백원가량의 금액을 자진히사하엿는데 임원의씨명과 출연한 금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文永浩 副會長 [illegible] 會計 金[illegible]文 書記 朴[illegible]

◇出捐者氏名 ▲五十圓式 文永浩 金[illegible]文 [illegible] ▲二十圓式 [illegible]

載寧

編物 洋裁縫 刺繡講習會

▲期日 自十二月十九日至二十四日
▲場所 載寧明新普通學校
◇申込期日 十二月十九日午前까지
◇會費 一圓
◇主催 朝鮮日報社載寧支局

愛慾의彼岸 【16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종호의 처가 밥상을 들고 사랑에 나갓때에는 김정호는 벌서 망우리로 간 뒤엿다。

「상 들여요!」

해도 대답이 업슴을 보고 종호의처는 영창을 열어 보앗다。 방안에는 김정호의 벗어 노은 옷과 접지도 아니한 편지 두장이 널려 잇슬뿐이엇다。

「아까 자동차 소리가 나는것 가터니 어딀 가셧나?」

하고 어멈을 불러 상을 도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 시아버니의 옷을 개켜 치고나서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너흐랴다가, 봉현듯 아까 혜련이가 옷을 갈아 입다가

「내가죽으면 내 세간을 엔난이를 주어도 조수!」

하던말을 생각하고 청량리서 부친 혜련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엿다。

「아아, 이를어째。아이 정말자살을 하랴나보이!」

하고 혼자 감탄하면서 읽어내려가다가 남편에게 자기를 부탁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편지를 떨어트리고 두손으로 낫을가리우고 울엇다。

「그처럼 누이가 나를 생각하여 주엇든가?」

하면 자기가 진일 마른일에 헤어나지 못할때에 혜련이가 곱게 단장하고나가 돌아 다니는것을 볼때때로 밉게 생각하던것이 뉘웃첫다。 인제 만일 혜련이가 집에 돌아온다면

「작은아씨。내가 잘못햇소」

하고 그아페 업듸여 울고라도 시펏다。

그런데 혜련은 벌서 죽지아니하엿슬가 하면 종호의 처의 가슴이 아팟다。

종호의 처는 혜련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하엿스나 처음에 읽던때와 달라서 구절구절이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그의 눈물을 자아 내엿다。

그는 또 한 편지를 봉가하엿스나, 그것은 시아버니에게 한것이라 훔쳐본것이 올치 안타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 글가 눈에 뜨이지 아니 하도록 봉투에 집어 너어서 책상우에 노앗다。

「원、이가 어델가슬가?」

하고 남편이 업슴을 원망하고 잇슬때에 전화가 울렷다。 그것은 남편의 음성이엇다。 종호는 집에 들어 오고 시픈 때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집에 업는것을 탐지하라는 버릇이 잇섯다。

종호의 처가

「큰일 낫서요。 어서 오세요。 누님이 돌아가셧소。」

하는 말에 종호는

「뭐? 누가 돌아가셔?」

하고 깜짝 놀라는 대답이엇다

「어서 집으로 오세요。 오시면 다 알테니」

「아버지 안계셔?」

「글세 큰일 낫스니 어서 오세요」

종호가 황급히 수화기를 거는소리가 종호처의 귀에 들렷다。

종호의처는 남편이 들어오다는것으로 마음이 든든하엿다。 그리고 청량리에서한 혜련의편지를 한번더 훌터보며、

「저도 사람이면 이편지를 보면、생각이 잇것지」

하고 회심한 남편을 잠깐마음에 그려보앗다。

얼마아니해서 종호가 씨근거리고 뛰어들어왓다。

「누가 죽엇서? 누가 돌아갓서?」

하고 종호는 구두도 아니벗은채로 업드려서 영창을열고방안을들여다 보앗다。

「어서 그 편지를 좀보슈。얼른보시구 어머님 산소로 나가보슈。아직 안돌아가섯스면 작히나조흘가」

하고종호의처는 남편이 혜련의 편지의 자기에게 관한 대목을 읽는것을 겨테서 보고 잇는것이 면구 할듯하야、또는 남편에게 대하야 시들하게 생각한다는태도를 보이고 시퍼서 뒤도안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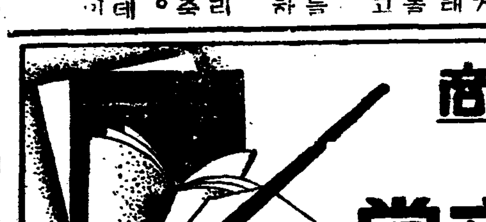
얼마후에 종호는 안마당에들어와서 아마 자기안해에게 하는소리로、

「죽엇군。그애가 죽엇서。우리집안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죽엇단말야。나 산소에 나가오。살앗는지 죽엇는지 혜련이를데리고 올테니 아랫방이나 깨끗이 치워 방 불은 때지말구。」

하고 뛰어나가고 말앗다。

痼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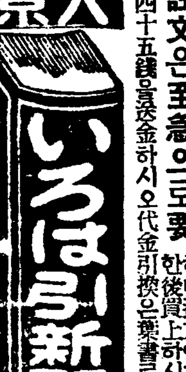
痔疾癩에、히스테리ー腦貧血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京城仁寺町 電光七三八・振替京城五〇九五

好職業
失業、不景氣모르고、돈버리가크다、男女小不問、自宅에서할수잇는 本業、副業 ... 見本無代進呈 申込者에게 ... 急募 大阪天王寺區寺田町 ... 商會

간질
간질에 秘方(칸사루)를쓰시요 특효가업스면 반금증서를보냅니다 약가십원、오원、송료삼십오전
京城鐘路四丁目五九番二層事務所 日光製藥社 私書函光化門局三七番

山葉オルガン
お子様の爲に
定價30圓より
(カタログ送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ー(電本三四八五)

大景品

いろは引新辭典
最新刊
註文은至急으로要
一圓四十五錢을送金하시오 代金引換은 ...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定評잇는! 詳解漢和大辭典!
緊急分讓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을 特別景品付로單只一圓二十錢
詳解漢和大辭典

世界唯一・完壁을誇함
農業用 小型 얀마ー디ー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運轉經費電力의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始動簡單、兒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馬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ー다ー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回轉에差가없어모ー든用途에歡迎
型 力 馬 2 3
型 力 馬 4 6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總發賣元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株式會社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生徒大募集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今ガ入學ノ絕好時期
◆練習車 練習場 完備朝鮮第一
◆絕對責任教授 學費最低廉
◆就職無料紹介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場所 京城府若草町橋本フォード自動車販賣店內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主任警部 溝見良
本局六七〇四
(學則送呈參觀歡迎)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
簡單히되고 年中無休 原紙供給 製品은確實引受
大阪市天王寺區 ... 太陽社營業部

第十四回全州藥令開市
藥令開始日 自昭和十一年十二月廿三日(丙子十一月十日) 至昭和十二年一月十日(丙子十一月末日)
藥令到着貨物에倍加優勝하야 外來客의便利를圖함
但現時價代金引換 ... 以上에超過치아니함
主催 全州漢藥組合 全州藥業組合
後援 全州市場仲介組合 全州藥令市成會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在滿支店讓渡內容(上)
加藤朝銀總裁演述

十四日朝鮮銀行臨時株主總會席上 加藤總裁의演述要旨如左하다

今日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한것은 從來의營業狀態上에 重大한 變革을加하게되어 其顚末을 報告하고저하야

滿洲國이 成立된以來이미 四年有餘를經過하고 其間各般의建設工作이 着着進行되어 國內治安維持에이어서 가장重點이잇는것은 日滿經濟關係를 基礎로하는 同國의 資源開發及産業振興에잇스며 日滿不可分의 依存關係에立한 日本으로서는 其國의 建設에對하야 그發展을 支援하고 其完成을 實成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同國의 産業上의發展을期할 通貨의安定과 金融의疏通은 建國以來苦心하야 먼저 滿洲中央銀行을 設立하고 紊亂한 通貨의統一을 圖하얏는데 其貨幣制度는 銀에 依據한關係上 國際的銀市場의變動에 伴하야 其價値維持가困難하고 日滿兩國의 經濟關係上 昭和十年十一月四日 滿洲國幣를 國幣와 日本金圓과等價로 하야 그後 滿洲國政府의管理통貨制度와 日滿通貨統一의 方針을 確立하얏다 (以下 判讀困難)

日滿兩國의 經濟關係에 있어 滿洲國內의 營業은 朝鮮銀行에 在하야 同國內의 産業開發及金融의疏通에 從來 努力하야 왓스나 이제 滿洲國의 特殊銀行으로서 滿洲興業銀行을 設立하야 當行의 滿洲國內에 잇는 支店을 讓渡하기로 되엇다 ……

紡績株等低落
重工業株昂騰

中國의 新事態發生으로 維株의 動向은 區區하니 大體로는 紡績株와 人絹株等은 低落되고 重工業株를 中心한 軍需株는 强調하야 …… 日東紡이 八十錢低 …… 大阪商船은 …… 東京電燈은 …… 日本綿花 ……

臨迫한 當限戰
此邊에 終始乎

一時漸落의 漸退勢이 繼出하야 二十七圓七十錢臺에서 二十八圓二十錢臺까지 突高하엿슨 當限은 又一層 高價를 示하고 ……

今日財界 (十四日)

◆米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九、七五	不變
大阪期米 先限	三〇、三五	三〇高
正米	一石 二六五	五低
京城正米 百斤	一三、二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八錢八厘	
玄米		

◆株
	今日	比前日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更生水組의缺損
七十六萬圓
積立金中十九萬圓을支出
收穫皆無는四組合

土地改良事業의 中止에依하야 不良水利組合으로 整理中인 三十五個組合으로 組織된更生水利組合聯合會의今年度組合費決定의委員會는 前者總督府에서 開催한바 今年은大水害에依한 組合 蒙利區域內 被害가甚大하야 今年은 國庫補給金五十七萬圓을가지고도 오히려 支出이不足하야 昨年中의積立金 三十三萬圓中에서 十九萬圓의支出을보게되엇다 그 卽今年은 收支缺損補給七十六萬圓이잇슨터이다 同組合總蒙利面積二萬七千町步中 組合費賦課面積은 二萬五千九十六町步로 組合費는 平均反當二石五斗二升이엇고 收穫은 平均反當二石五斗二升이엇다 三十五組合中 收穫皆無의 組合은 京城의 陽東(六二三町步) 慶南初同(二二六町步) 同第二咸興(一九〇町步) 同北面(二六〇町步)等이엇다 또更生水組中最不良組合으로 總面積의 三分一강가히 占領한八千七百餘町步의 江原中央水組는 그中에서 比較的成績이 良好한편이엇다 한다

朝銀臨時總會
大塚氏理事昇任

【東京電話同盟】朝鮮銀行에서는 十四日 午前十時 東京支店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하고 左記三件을 決定하얏다.

一、滿洲各支店(關東州를 除함)을 滿洲興業銀行에 讓渡할件을 承認

一、理事一名選擧의結果 現秘書課長兼 計算課長大塚源次郞氏決定

一、松原前副總裁 松田前理事 退任慰勞金贈呈件은 重役會一任決定

石灰窒素需要
一割增의豫想

新統制下의 各肥料는 모다前途不透明의 推移인대 石灰窒素만은 統制前보다安定되어 今年의 朝鮮內需要는 前年에比較하야 約一割增加인 五萬五千噸에 達한것이豫想되어 三井物産內의 石灰窒素販賣組合에서도 이미着着配給準備를進行하고 實需買도他肥에先行하야 需來되리다한다

經濟寸鐵

○朝鮮의 所謂三大景氣는 警戒期

○米價高도 日本內地豐作으로 解消되고 凶作低米價

○土地價도 凶作打擊으로 田畓反當弱勢、當分勃만로 買物殆無

○鑛山出願件數도半減 但이것은探算맞치기爲한 自覺에依한것이나 虛熱만은 업서진것

取引停止

(十二月十日)▲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崎山爲次郞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一九一 大昌洋行 金相俊

百十三石의減少이엇다

取八十一圓七十錢等에 各各大引되어 못하지아니한 波瀾을惹起하엿다

▲東新(三五〇)寄 引 …

後場堅調

後場은 東新百三十六圓七十錢、日産七十七圓丁鑛新百八十二圓丁에大引하야堅調이엇다

明年初市勢豫想懸賞募集

初立會(一月四日)

朝取期米 三月限發會價(前場寄價)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價
東新株 同上
(以上豫想을左記項目으로募集)

賞品 一等 五圓(一名) 二等 一圓(六名) 三等 朝鮮日報一個月購讀券(十二名)

▲適中者多數인때는 抽籤으로定하고 만약 適中者가 업는때는 最近價로써順次로 定함
▲終了=明年一月二日本社着에限함
▲發表=明年一月七日
▲注意=住所姓名을明記하야 朝鮮日報經濟部로보내고 用紙는葉書로 一人一張一題에限함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鑛業出願件數
今年은半減
朝鮮人側採算注意로

朝鮮産金景氣의 指標가될鑛業出願狀況에 對한十一月末까지의 今年計數를보면 昨年은十一月까지는 日本內地人 二千三百六十六件 朝鮮人七千三百六件合計九千六百七十二件이엇슴에 比하야 거이半減에가가운 數字를보이고잇다 卽日本內地人은 二千十件으로 前年에比하야不過三百五十六件이 減하엿스나 朝鮮人側은 三千六百三十八件이 半以上의 減을보아 合計五千六百四十八件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二十四件의 減을보이고잇다 이가티出願件數가 減한理由는 産金 乃至一般鑛業景氣가 減退하엿다는것보다는 昨年까지에 朝鮮人側은 不充分한調査를가지고 함부로 出願하든傾向이 顯著하엿든것이 今年에는探算에 注意하야 出願하기때문이라고 보고잇다

出願한件數를 主要鑛別로 보면 다음과갓다

	日本內地人	朝鮮人
金鑛	八四	四
金銀	五六四	一九七六
金銀鉛	九四	二九四
金銀銅	九三	一二五
金銀銅鉛	二四	一二八
金銀銅亞鉛	一八九	一〇
砂金	一〇五	一二九
鐵	三二	五五
黑鉛	三六	四一
石炭	一三六	六七
高嶺土	三八	三五
其他金銀系鑛	四八八	六六七

災害復舊
土木費配定

今夏風水害에依한 土木災害復舊費는國庫補助總額五百四十萬圓으로決定되어 總督府內務局에서 各道와各地配定을 査定中이든바 如左히內定하얏다 (單位圓)

忠南	一五九、三九〇
忠北	四八〇、三三〇
慶南	六三二、一二〇
慶北	九六七、四四〇
全南	三四二、九一〇
全北	六四三、四六〇
京畿	一五四、三五〇
江原	一、七一二、八五〇
京城土木出張所	二二〇、〇〇〇
全州	一〇、〇〇〇
光州	三〇、〇〇〇
釜山	九、〇〇〇
馬山	三〇、〇〇〇
草梁土木出張所	四〇、〇〇〇
計	五、四〇〇、〇〇〇

中國兵變의影響

諸株瞬時脅威

西安事件으로 中國政權의 顚覆가不里務中인 混亂狀態에 陷하얏는데 十四日의 株式市場은 東新이 東西兩市場共히 休日前에比하야 二圓가량 低價로 寄付하고 朝取短期 東新도 百三十六圓八十錢으로 休日前에比하야 二圓低、大新朝取其他 諸株도 一齊히 低價寄付이엇스나 다시反撥하야 前場大引은 朝取市場新東七圓八十錢으로 頑强하고材料의 再檢討 氣配로 意外平靜한態度를 보하얏다

上海爲替低落

【上海十四日發國通】外國爲替市場의 寄付는 노미널이나마對米二九弗二分一로 前場에比하야 一、三分下落하얏다 天津의 圓市勢는 四圓低인 百圓과 一分一로 推移하고잇다

香港金融動搖
紙幣一齊暴落

【上海十四日發國通】兵變에關하야 西南의 政變이 豫想되어 香港金融界는 動搖를示하고 十三日은 日曜日임에도 不拘코市中의 戰爭市勢로 演出하야 廣西紙幣는 香港弗에 對하야 一割五分 廣幣에對하야 二割의 暴落을 示하고 廣東紙幣도 香港弗에 對하야 四分一弗低 對英은 一志二片四分一로 十六分五片低를示하고 모다 銀元의 軟調를 反映하얏는데 此의市勢는 中央銀行의 最低價와相等하다

各移出港在米
前旬보다增加

朝鮮內各移出港의 在米는 十二月十日現在로

朝鮮米	七六四、二七六石
日本內地米	四七九
臺灣米	七二〇
外國米	一六
合計	七六七、四九一

으로 前旬에比하야 十四萬六千九百六十石의 增加를示하고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十八萬九千七百…

凶作、農家收入減
肥料資金回收不良

本年度의 肥料資金貸出은 殖銀、東拓을通하야 大體例年대로 貸出되엇스나 殖銀、東拓共히그 回收成績이 不良하야 例年當該年度內 回收되엇슴에 凹하야 本年은 結局未回收의것이 相當額에 達하리라는바 右는米凶作에依한 農家收入減에依한것이라 한다

中國兵變
株式混亂
商況 【十四日】

前場波瀾 休日동안에 張學良軍의 兵變에依한 蔣介石氏의監禁事件으로 日中交涉은勿論한바잇서 東亞政局에對한 憂慮는 甚大한하야 東新은今朝에 東京百三十六圓四十錢 阪地百三十六圓丁에 寄付하얏는데 當地는 百三十六圓八十錢으로 一圓低에 寄付하고 日産七十六圓四十錢으로 三十錢低、鐘新百八十一圓 五十錢으로 一圓三十錢低 朝新三十一圓七十錢으로、一〇低、朝取八十一圓八十錢으로 二十錢低에 寄付하엿는데 人氣는 不安한中에 市勢는 意外로寄付를 低價로도 足올라 東新百三十八圓丁으로七圓九十錢에 大引함에따라 日産七十六圓八十錢 鐘新百八十二圓五十錢、朝新三十一圓八十錢、朝

東亞政局警戒

張學良軍이 西安에서 兵變을 이르켜 蔣介石氏以下 中央要人을 監禁한事件은 아직判明되지아니한 蔣介石氏의 生死如何를 不拘코 東亞政局에 미칠影響으로보아 그重大性은 想像以上의 것이잇스니 이는 單純한蔣氏一人이나 中國內의 問題에만 끄치지안코 東亞政局全體를 動搖케할만한 危險性을 內包한것이니만큼 今後의 推移如何는 世界의 關心의的이 될것은 勿論이다 蔣氏의 拘禁이 長時日이되거나 또 被殺되다면 中國의 分裂 乃至 大動亂은 必至의事實이며 張學良의 要求가 抗日과 聯俄容共策 이므로 이를 契機로 亦未知이므로 日本도 蘇聯의 關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世界가 第二西班牙內亂으로 往視할問題라고도할수잇다 이것이日本에 반듯이 不利하다고 도할수업스나 도한赤化의 危機나 東洋平和의 動搖란點으로보아 有利하다고만도 斷言키어려우니 複雜微妙한 空氣中에서 더욱人心의 不安은 未免할 情勢이엇다 그런데 今朝에 一齊低寄되어든 市勢는 寄付를 低價로허 回復의길을 밟어 百三十八圓臺로가던 東新이前場에 百三十六圓臺에 올려 노흔것은 意外의 九圓臺에 올려노흔것은 市勢에 놀라지안흘수업는데 利喰으로서는 良가 過度이며 이러한 惡化된 市勢에 買方의投物이업다는것도 괴이한일이라고 할수잇는데 如何든 氣迷되기쉬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中國問題의 動向도 特히 刺戟材料가되지안허 場面은 處分商狀의 無詰氣閑散程度로 佛貨도 十五錢小綴이며 米貨償도 價低를율겨 六分半一圓五十錢低 五分半九十錢低로處分商狀으로 依然 活氣는업섯다

▲甲五分利一〇〇、一五 ▲一回四分一〇〇、七〇 ▲佛貨一九五四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一五 ▲第三五分 一〇〇、七五 ▲一回四分 一〇一、一二〇 ▲二回四分一〇一、一二〇 ▲佛貨 一九五、五〇 ▲米貨六分半 三四七、〇〇 ▲滿洲公債 一〇〇、一〇

○五〇을最高始하야 昭和肥新四四〇〇(二〇高) 合同油脂新의 五〇六〇(三〇高)等으로 頑强하며 日本曹達新 二八九〇(二〇低)라 삼工業 一〇四五〇(五〇低) 同新五八二〇(四〇低)는 買過反動이오 産金株는 帝國産金은四九三(四〇高)이나 三菱新은 七八五〇(八〇低)이엇스며 도또지는 不變이며 金鑛業은 二〇六〇으로續落이엇다 고무株 세멘트等은不變이오 滿洲物은 팔푸類가 依然頑强하야 東滿팔푸一五五〇(一〇高) 팔푸工業一三五〇(不變)이엇다

期米 釘着裡에 堅調

前場膠着 一昨日 大阪地는 深押當限地는 한番 回復하야 當日이 何如間 …

越年後變動?
年內는保合!

來十六日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된 新公定米價와 米穀自治管理案의 發動範圍를따라 一波紋을 惹起할듯도하나 그러나 大體米價는 豐作米로의 相當한高價를 維持하고잇슴으로 政府로서는 米貨替를 一時中止하엿다 가 越年後米價의 低落을防止하려는 一策으로 機會를보아 實施한다는 說이업지아니하며 農家의 賣惜으로 論한다할지라도 換金急의賣物은 旣히一巡되고 大戰을하려하는 態度임으로 此邊에서 終始하다가 年末大納會를 告하지안흘가한다

(株)……東阪兩地의 今朝寄付는마치 底不知의 慘落을再演할것이나 아닌가 念慮되드니 ▲意外랄가 市勢는 逆으로上進하야 東新은 百三十六圓臺로부터 九圓臺를 現出▲人氣의反對로―하는 常套語가나오기는하나 急反撥은 그리조흔現象은아닐것▲投物이 업슴은 괴이하나 良는賣叩된것 覺悟함이 可하지안흘가▲如何든 保合場面을 一掃한것만은 快한일이나 今後情勢複雜化와 條件 行動은 警戒不急를 信修로하여야할것……

(米)……政府는越年後의 米價低落을防止하려는 一策으로 年內의 買替는 中止한다고 越年後는 반드시 一落을 見할모양?▲떠러진다할지라도 그程度를可히알수잇스나 買方은持久戰이 得意엿다▲今朝九〇二쯤은 二十八圓〇五錢으로 小落 大體止米도 伸縮▲그래서當限도 今朝十八圓十錢으로 低落▲實玉當限도 別 波紋이 업시 此邊에서 終始하다가 納會?▲何如間 市勢는 深押할 際地는 적고 反撥할 餘地는 尙多

(六感)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數字表 [illegible])

仁川在庫減少

【仁川】仁川在庫米를 調査하건대 前週同期에比하야 一、三一〇 二叺의 減少를 보히주고잇다 庫別은 如左하다

▲玄米四二、七一一叺(四斗入) ▲白米九、一六九叺(五斗入) ▲白米三、九四八叺 ▲正租一四〇、七二三一叺 ▲小豆三三〇叺 ▲大麥九六一叺(白)四九八叺(粳) ▲小麥三九一六叺 ▲粉白米五九〇叺 ▲胡麻一〇〇叺 ▲裸麥二、九四七叺 ▲黍一、二〇五〇叺 ▲糯白米一六〇五叺 ▲大豆三、九二五袋 ▲外國米 合安九八〇 ▲浚渫米一、三五三袋

後場頑强

後場은 二十七圓七十錢으로 寄付한後 五十錢臺에서 終始하다가 結局七四錢에頑强하엿다

一部分은 滿米價를 待하야實却하려하는 光景이나 此는 實米가그만큼 産地에滯溜되어잇슨만큼 越年後부터는 漸次用米하지안흘가하며 또아서實際에야 米價의反落을告하지안흘가한다 實王大勢는 反落한다할지라도 그다지深入은期待키難할모양이오 又는穀物價의昂騰에比하야 米價至高의低落에 期待할수업슴으로 어느程度까지 下押한後에는 반드시 本格的反撥을示하기가 十常八九일것갓다

仁川少艶

行不振으로 市勢는 五錢軟化이엇다 七七五 ②二等二八、〇五 四等二七、七五 一等白米二一、〇〇

群山軟弱

産地는依然强하나 日本內地不賣와 期米不動으로氣配五錢軟化하엿는데 日本內地에는 一三三十錢高에 賣하므로 目前은正低가 잇슬것으로보인다 ②三等二八、〇五 四等二七、七五 一等白米二一、五〇

大邱保合

實行不振에 人氣衰退하야 十五錢低唱이되엿다 日本內地賀洋大도 二十錢의 價差로 實買는 잘成立되지안는다 ②三等二七、六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二二、〇〇

期米保合으로人氣不振이나 年末手當物이 조금식잇고 奧地賣物薄으로 唱價는 五錢高이엇다 ②三等二七、七五 四等二七、四四 一等白米一一、二〇

釜山同調

市場出廻가 大千叺이잇섯는데 精米側의物色買繼續과 期米採算系에 조금식買付되고잇스나 期米의 小浮動保合에 高價에는 警戒하야 市勢는 伸惱이엇다 四三等二七、九〇 四等二七、六〇 一等白米一一、八八

木浦弱含

當用小口買가散見될뿐이오 定期의 釘着을보고 一般은 根押될모양으로 專히 形勢傍觀의 態度이다 ③三等二八、〇〇 四等二七、七〇一 等白米一三、〇〇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産地不渡와 株低로買氣를阻害하야 永野店으로부터 朝鮮側賣物이나와 下寄이엇스나 漸次押目拾氣로漸騰하고 押目買進이엇다 減收期待

各地正米

京城少低 期米保合과 實買…

京城 盆益券證株 米 盆 仁川 康益商會商店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二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十二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十四日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賣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四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鹽油相價◆ [illegible]

◆鹽粕相價◆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人絹 現物◆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十三日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치카코期麥◆ 十三日 [illegible]

◆日本變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株式 十四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短期二新後取◆ [illegible]

期米 十四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 期米 大 マルダイ トリヒキテン

○桑野取引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電話長(三九番

大陸商會 石金 土金 分析賣買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六一三番 振替京城一五一四番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